

# 리아호나

살아계신 그리스도, 9쪽

요셉 스미스: 회복의 예언자,  
37쪽

템플 스퀘어 단장, 천8쪽





2 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행위는  
우리 구속주이신 구세주의  
구속의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때에 그  
희생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된  
평안의 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평강의 왕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평화의 힘”,  
2쪽 참조



# 리아호나



### 표지

그림: 제프리 하인, 생각하는 마리아, 복사 금지



### 친구들 표지

그림: 시몬 듀이, 그의 이름은 기묘하라, 유태 아메리칸 포크 알투스 파인 아트 제공, 복사 금지



"시골 소년 그 이상이였다", 37쪽 참조



"성탄절 십자수", 16쪽 참조

## 성인

- 2 대관장단 메시지: 평화의 힘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6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 9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 14 가족을 강화함: 가족은 창조주의 계획의 중심이다
- 16 성탄절 십자수 데이비드 토이
- 20 물문경 원리: 어떻게 제가 간증할 수 있었을까요? 한스 에이치 매트슨 장로
- 22 물문경 원리: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 로버트 알 스튜어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봉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낌
- 26 강한 손과 사랑하는 마음
- 43 말일성도의 소리
  - 성탄절 전날의 아침 식사 토니 헤이크스
  - 애플래치아 계곡의 크리스마스 트리 로리 홉킨스
  - 먼저 카드를 열어 보렴 사무엘 오소리오 멘도사
  - 도심의 선교사들 레이 반 데르 푸트
- 48 애독자 편지

## 청소년

- 10 주님의 손길 엠 러셀 밸라드 장로
- 19 포스터: 자신을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 31 알고 계십니까?
- 32 예언자의 탄생지 재닛 토마스
- 37 복음 고전: 시골 소년 그 이상이였다 마크 이 피터슨 장로
- 40 질의 응답: 저는 매력이 없습니다. 제발 제게 매력이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 어린이: 친구들

- 친2 일년 중 아름다운 절기: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대관장단 성탄절 메시지
- 친4 포스터 기사: 예수님에게는 의로운 지상의 부모가 계셨음
- 친6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생애에서: 자비로운 사업가
- 친8 템플 스퀘어의 성탄절 킴벌리 웹
- 친10 함께 나누는 시간: 일 년 내내 주는 성탄절 선물 실러 이 윌슨
- 친12 성탄절 저녁 식사에 필요한 양배추 트리사 마틴
- 친16 특별한 증인: 계명을 지키라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 22쪽 참조



복사 금지

그림: 제임스 시 크리스틴슨, 마리아

“친새가브리엘이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 마리아가 이르되 ...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누가복음 1:30~31, 38)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심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라셀 벨 몬슨, 달린  
에이지 우스, 엠 라셀 밸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차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윌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몬티 제이 브러프, 더블류 롤프 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라스네츠포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브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톨니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콜러트 네베키 오온, 수잔 브렛, 사나 버틀러, 라이언 카,  
린다 스탈 쿠퍼, 라렌 포터 콘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알 발 존슨,  
캐리 카스텔, 엘빈 레빗, 샬리 케이 오데카르, 애덤 시 울슨, 주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돈 엘 쉘,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러,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외탈, 크리스탈 헬, 모니카 워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외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렌 프랫,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유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슨

통 권: 제 465호, 제 41권, 제 1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4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위도/지부과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티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리투아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4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hurch Copyrights and Permissions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December 2004 No. 1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  
 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주님의 손길”**, 10쪽: 엠 러셀  
밸라드 장로의 기사에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말한다.  
가족들에게 잠시 시간을 주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게 한다. 그러한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게 한다.

**“성탄절 십자수”**, 16쪽: 이 기사를 함께  
읽고 나서 가족들에게 영원한 가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 가족이 무작위로  
서로의 이름을 대고 왜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지 특정한  
용어로 표현한다. 이러한 사랑이 담긴  
표현은 여러분의 가족이 금년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성탄절 선물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제가 간증할 수 있었을까요?”**,  
20쪽: 한스 에이치 매트슨 장로는 선교  
지역의 언어 훈련도 받지 않은 채  
선교사로 나가는 도전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가족에게 자신의 생애 동안  
주님께서 요구하신 어려웠던 일에 대해  
말한다. 어떻게 약한 것이 주님의  
도움으로 강하게 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시골 소년 그 이상이였다”**, 37쪽:  
가족과 함께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애와  
사명 중 한 가지 이상에 대해 토론한다.  
그의 사명과 물몬경의 참됨에 대해  
간증한다.

**“성탄절 저녁 식사에 필요한 양배추”**,  
친12쪽: 가족들에게 애니가 양배추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를 설명해  
보게 한다. 가족들에게 구세주의  
탄생과 사명에 관련된 성탄절의 전통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한 가족으로서  
여러분에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상기시켜  
주는 새로운 전통을 생각해 본다.

**“계명을 지키라”**, 친16쪽: 자녀들에게  
아비아다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설명한다.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느냐고 묻는다. 순종을 통해 오는  
축복에 대해 말한다.

## 이번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43, 친2, 친8, 친10,
가르침, 1	친12
가정 복음 교육, 5	순종, 친4, 친16
가족, 14, 16, 친4, 친10	신성한 본질, 40
간증, 6, 9, 32	역경, 20
결혼, 14	영감, 43
구원의 계획, 14, 22	예수 그리스도, 2, 6, 9,
기도, 43	10, 22, 25, 친2, 친4,
물몬경, 20, 22, 37,	친8, 친10
친16	예언자들, 6, 9, 10, 32,
방문 교육, 25, 26	37, 친6
병 고침, 10	요셉 스미스, 32, 37
보호, 친12	응서, 2
봉사, 10, 19, 25, 26,	우정, 26
43, 친6, 친8, 친10	자기 가치, 40
사랑, 25, 친2, 친6, 친10	재능, 19, 40
상호부조회, 26	지도력, 31
선교 사업, 20, 43, 친12	초등학교, 친10
성신, 22	평화, 2, 10
성전, 14, 16, 친8	회복, 32, 37
성탄절, 2, 16, 19, 31,	



# 평화의 힘

##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저**는 여러분 모두와 더불어 이 훌륭한 절기를 기쁘게 맞이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많은 성탄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이 특별한 절기를 더 즐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 이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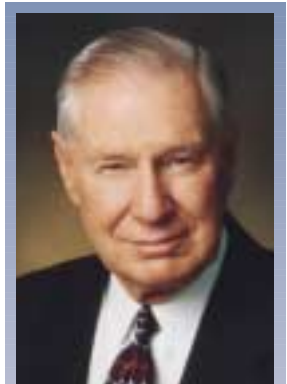
이제까지 보낸 성탄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은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선교 지역에서 봉사하거나 군복무를 할 때 있었던 것들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군에 있으면서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언제 이 끔찍한 고통과 괴로운 전쟁을 끝내고 모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땅에서는 기쁨과 평화가 있으리라”<sup>1</sup>는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이 소절을 부르는 독일과 일본의 기독교인 병사들도 마음속으로 같은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원자 폭탄 두 개가 떨어지고 나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인류가 그러한 엄청난 파괴력을 본 적이 없었기에 우리들은 이 위협적인 폭탄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저는 원자탄이 투하된 후 일본에서 미 해병으로

복무한 케네스 제이 브라운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나가사키에서 성탄 절기에 만난 일본인 기독교도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그가 거리에서 몸을 돌려 우리 숙소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머뭇거리고 주저했다. 그는 가까이 다가오면서 우산을 접고 한참 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그가 입고 있는 얇은 코트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차가운 비에 젖어 있었다. 불과 3개월 전 그 지역 주민의 거의 절반을 죽게 한 바로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였다. 나는 그가 정복자로부터 초대도 받지 않고 우리를 만나러 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가 주저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가 내게 정중하게 인사한 것은 복종의 인사가 아니었다. 그의 각진 어깨와 치켜든 머리는, 내가 그보다 30센티미터 정도 우뚝 서 있었지만 그를 올려다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했다. 나는 폭탄이 투하되던 그 아침 하늘을 쳐다본 사람들이 거의 시력을 잃었고, 그 시력없는 눈을 보는 것이 익숙지 않아 당황스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그 힘은 지상에서 2,000년 이상이나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요, 구세주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증보자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힘입니다.



“... 나는 그에게 도와 줄 일이 있느냐고 정중하게 물었다. 그는 정확한 영어로 자신을 이이다 교수라고 소개했다. ...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여기가 수석 군목 사무실이라고 들었습니다. 맥은 기독교인이신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니 기쁘군요. 일본에는 기독교 신자가 별로 없습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나는 그를 안에 있는 군목 사무실로 안내했으며 군목과 그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기다렸다. 이이다 교수는 간단하게 그의 요구 사항을 말했다. 그는 천황의 명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기독교 여자 대학교의 음악 교수였다. ... 그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투옥되었었다. 출옥한 후에 나가사키로 돌아온 그는 집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일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했다. 그는 조그마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 해병을 위해 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다면 기쁘겠다고 했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가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보내는 여러분의 성탄절이 좀더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군목이 부정적인 대답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부대원은 단련된 전투병들이었으며, 4년간 집을 떠나, 사이판에서 이오지마에 이르기까지 적들과 싸워온 군인들이었다. ... 그러나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에 무언가 좋은 일을 하겠다는 진지한 소망이 엿보였으므로 군목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 공연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갖기로 했다.

“비는 그쳤으며 원자탄이 터진 구덩이에는 그리스도가 탄생하던 밤에 있었을 고통을 상기시키는 적막함이 깃들어 있었다. 달리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던 많은 병사들이 공연장에 모였다. 무너진 극장의 지붕은 깨끗이 치워졌으며 사람들은 고르지 않은 무너진 벽에 걸터 앉았다. 합창단원들이 무대로 들어오자 청중은 조용해졌다.

“공연을 시작하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들이 가사의 뜻도 모르면서 우리를 위해 영어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이이다 교수는 학생들을 잘 지도했으며 그들은 아름답게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하늘의 합창단이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불러 주고 있길라듯 한 듯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 마치 그날 밤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난 듯했다.

“마지막 노래는 ‘메시아’의 아리아 솔로였다. 노래를 부른 여학생은 예수가 참으로 인류의 구세주였다는 확신을 갖고

불렀으며, 우리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작은 규모의 합창단이 인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뜨거운 박수를 보냈으며,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늦게 나는 이이다 교수가 장식한 물건들을 치우는 일을 도왔다. 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무례라고 생각되었지만 호기심에 차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꼭 알고 싶었다.

“어떻게 합창단이 원폭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내가 물었다.

“반만 살아 남았습니다.’라고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그때 슬픔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같지 않아 나는 더 물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합창단원들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모두가 한 사람 이상은 없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독창을 한 학생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영혼을 지니고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와 오빠가 죽었습니다. 네, 그 아이는 노래를 참 잘 불렀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아이는 제 딸입니다.’

“다음날은 내가 기억하는 가장 최고의 성탄절이었다. 이는 그날 내가 사람들이 기꺼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려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신이 살아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증오가 봉사로 바뀌며, 고통이 기쁨으로, 슬픔이 용서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구유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으며, 나중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큰 슬픔을 겪게 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들의 형제와 같았기에 그들은 기꺼이 슬픔을 잊고 ‘땅에서는 기쁨과 평화가 있으리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이이다 양이 노래로 부른 간증의 가사,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그 노래 가사는 반 이상의 주민이 죽은 도시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치는 것 같았다.

“나는 또한 그날, 세상에는 원자탄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sup>2</sup>

그 힘은 지상에서 2,000년 이상이나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요, 구세주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증보자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노래를 부른 여학생은 예수가 참으로 인류의 구세주였다는 확신을 갖고 그 노래를 불렀다. … 나는 증오가 봉사로 바뀌며, 고통이 기쁨으로, 슬픔이 용서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오는 힘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신앙과 순종을 통해, 우리가 기쁨과 행복, 평화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만일 우리가 성약에 충실하면 영원히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세상이 창조되고 구원의 계획과 행복의 계획이 시행되게 한 신권의 권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고난을 통해 확대된 권세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축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모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행위는 우리 구속주이신 구세주의 구속의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때에 그 희생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된 평안의 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평강의 왕이 치른 속죄의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

주

1. “저 멀리 유대의 넓은 들에”, 찬송가, 128장
2. “A Greater Power”, in *Christmas I Remember Best: A Compilation of Christmas Stories from the Pages of the Deseret News*(1983), 51~53쪽.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가족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교수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갯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구세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 혹은 손의 상처를 보이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림을 보인다.(복음 그림 패킷, 227, 230 또는 234 참조)
2. 용서에 대한 교수의 모범을 들어, 가족들에게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용서를 받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3. 가족들에게 이이다 교수가 한 것처럼 이번 성탄절에 축복해 줄 개인이나 가족을 찾아보도록 부탁한다.

#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해 왔다. 그들의 간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구약의 위대한 여호와이시며 신약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다.

**다** 음 세 쪽에 나와 있는 각각의 말씀이나 9쪽에 있는 사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말일의 예언자, 선전자 및 계시자들이 구세주에 대해 가르치며 그분이 살아 계심을 증거한다.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전세계를 위한 은혜의 행위로써 속죄해 주신,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필멸의 상태에 놓인 우리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 그분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속주, 인류의 구세주, 거룩하신 분, 생명과 평강의 왕이신 분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간증”,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4~5쪽)

##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교사이자 교사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생의 귀감이 되지만 귀감 이상의 분이십니다. 위대한 의사이시지만, 의사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곧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살아 계시며 우리도 그분을 통해 살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주님의 길”, 리아호나, 2003년 1월호, 7쪽)

##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예수님은 신성한 속성을 물려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이 지상에 살면서도 죄가 없었던 유일한 분이로서, 영적인 죽음에도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신성으로 인해 육체적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가지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습니다.”(“속죄: 우리의 가장 큰 희망”,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20쪽)

##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이 교회를 감리하십니다. 그분은 이 곳에 있는 그분의 종들에게 낯선 분이 아니며, 우리가 조용한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영은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그리스도의 평화로운 추종자들”, 성도의 빛, 1998년 12월호, 24쪽)

##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역사에서 핵심이 됩니다. 신성한 계획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각기 구세주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하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율법을 지키겠다고 성약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된 심령으로 영접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구원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주님의 만찬에서 제정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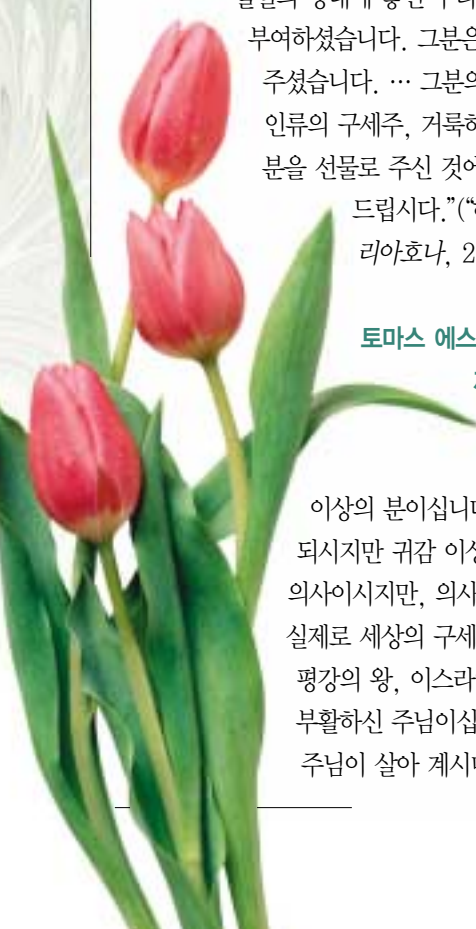






그림: 데이비드 비 헤이트, '내 손과 발을 보라'

성찬”,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57쪽)

75쪽)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1906년~2004년),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주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의 사명과 지상에서의 성역, 부당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일, 주님이 겪으신 고통, 그리고 그분의 최후의 희생과 부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그분에게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귀중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나사렛 예수”, 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닐 에이 맥스웰 장로(1926년~2004년),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예수님의 명어를 스스로 지지 않는 한 그분에 대한 깊고 영원한 것을 진정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경험이 그분과 비교할 때 보잘 것 없다 하더라도 적절한 경험은 그분과 그분의 신성한 속성에 대해 예리하고 깊이 있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예수, 완전한 교사”,

엔사인, 2001년 2월호, 13쪽)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잘 교육 받은 음악가가 악곡의 스타일과 구성을 통해 교향곡의 작곡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잘 교육 받은 외과 의사도 해부학적인 스타일과 구조의 유사성을 통해 인류의 창조주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이 유사성은 똑같은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신성한 창조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와 깊은 영적인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며 그 이상의 분이심”,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6쪽)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워 나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구세주께서 하신 다음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게 합당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리도다.’(모로나이서 7:33)”(“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100쪽)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말씀하셨으며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을 가르치기 위해 예언자와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 그것은 복음의 가르침을 단단히 붙잡도록 도와 주는 닻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행로를 더 안전하게 바꾸어 줍니다.”(“그리스도 안에서 확고부동함”, *엔사인*, 1993년 12월호, 50쪽)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 모두 함께 참석했던 전세의 천국 회의에서, [구세주께서는] 선한 영들을 이끌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국



전쟁에서 우리는 모두 그분의 편에 있었으며, 현세에서도 예수님의 편에 있습니다.”(“기독교인의 믿음과 행위”,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70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구세주가 살아 계시고, 온전한 사랑을 지니신,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신 개체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중보자요 구속주이십니다.”(“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08쪽)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는 ... 온 인류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깃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를 성취하신 빛이십니다. 그분은 텅 빈 무덤의 빛이십니다. ... 그분은 저의 빛이며, 저의 구속주이며, 저의 구세주입니다—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어둠에서 나와 그의 놀라운 빛으로”,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79~80쪽)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폭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세주의 권세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또한 배 밖의 물 위에 계셨음을 기억하십시오. ... 험한 파도와 싸우신 분만이 바다를 향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잠잠하라’ [마가복음 4:39]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경이 지닌 모든 힘을 빼앗은 분만이 우리에게 ‘담대하라’ [요한복음 16:33]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43쪽)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일을 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이 그분을 항상 기억하겠다는 성약을 했든 그렇지 않든, 그분은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실 것입니다.”(“항상”, *엔사인*, 1999년 10월호, 12쪽) ■



#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 천 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삶의 실재와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의 무한한 가치에 관해 간증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고 또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위대한 여호와였고 신약의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3)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침례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사도행전 10:38)셨고 오히려 그 때문에 멸시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평화와 선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보이신 모범대로 행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길을 걷고, 병자를 치유하며,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영원에 관한 진리와 전세의 실재와 지상 생활의 목적과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의 잠재력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위대한 속죄 희생을 기억하도록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체포되어 무고한 혐의로 정죄받고 폭도들의 원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은 지상에 살게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의 삶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지도 않았고 갈보리에서 끝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장자였고 육신을 입은 독생자였으며 세상의 구속주이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린도전서 15:20)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방문하셨으며, 고대 미대륙에 살고 있던 그분의 “다른 양들”(요한복음 10:16)에게도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현대에도,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어 오래 전부터 약속된 “때가 찬 경륜”(에베소서 1:9)

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은 그 희기가 깨끗한 눈 같고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와 음성이니라.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교리와 성약 110:3~4)

이 예언자는 그분에 관해 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양에 대한 간증은 이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76:22~24)

우리는 그분의 신권과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그분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에베소서 2:20)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언젠가 지상에 돌아오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이사야 40:5)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며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분 앞에 경배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와 마음속의 소망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합당하게 성임 받은 그분의 사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인 임마누엘이시며 오늘날 아버지의 우편에서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이 생애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비길 데 없는 선물로서 거룩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2000년 1월 1일





# 주님의 손길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저**는 영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좀더 노력할 때 그들의 상처가 나을 수 있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병과 신체적인 병 모두를 고치는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듯이 어느 여인은 다만 그분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누가복음 8:46~48)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몫을 다할 경우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 자신의 몫을 다함

어느 청년 교사가 많은 반의 한 반원은

맹인이었으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반 학습에 참여할 수가 없어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소녀의 집으로 가서 크게 읽어 주면 소녀는 그것을 자신의 개인 발전 기록부에 점자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2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교사는 또한 다른 반원들에게도 그녀를 돕게 했습니다. 교사의 지도를 통해 반원들도 맹인 소녀의 집으로 가서 그녀에게 교재를 읽어 주어 결국 교재가 점자로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이 교사를 통해 전달되어, 이 소녀에게 뿐만 아니라, 맹인인 다른 많은 소녀들에게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부 청년 사무실에 가면 그 점자 교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작은 체구, 큰 마음

때때로 구세주의 손길은 체구는 작으나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여인은 선교사와 복음 토론을 했으나 아직 침례 받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그녀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와드의 성찬식에 참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곳에 있고자 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할 경우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 리가 교회 본부 사무실을 떠날 때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김볼 대관장님을 보게 되었는데, 제 친구의 아들이 “김볼 대관장님이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흔치 않은 상황이 또다시 우리와 김볼 대관장님 사이에서 몇 분 동안 펼쳐졌습니다. 그 분과 함께 한 짧은 순간은 너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영원한 것이었으며 이 젊은 청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소년 옆에 앉았습니다. 성찬이 소년에게 전달되자 그 소년은 그녀가 성찬 떡을 취하지 않았음을 눈치 채고는 자기의 떡을 둘로 나누어 반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여인은 어린 소년의 이처럼 의미 깊은 친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선교사를 만나 “이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그와 같이 가르친다면 저도 회원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그가 이해하도록 도움

주님은 니파이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빛을 들어 세상을 비치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치켜들 빛이니...”(니파이삼서 18:24) 주님의 손길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빛이 비쳤던 최근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반려자와 사별한 지 며칠 안 된 저의 절친한 친구를 방문한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에게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라고 묻자 그는 “내 아들이 이해하도록 해주게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의 아들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무척이나 사랑했었습니다. 어머니가 여러 달 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친구의 아들은 기도와 신권의 축복이 응답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으며, 그의 생활에서 주님의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해하도록 해주게나.”라고 한 친구의 말이 저의 귓전에 울렸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저는 자문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에게 교회 본부로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가 도착하고 우리가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는 동안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많은 총관리 직원들이 우리 식탁 옆으로 지나면서 우리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십이사도 중 여덟 분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한꺼번에 그처럼 많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을 본 것은 전무 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본부 사무실을 떠날 때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김볼 대관장님을 보게 되었는데, 제 친구의 아들이 “김볼 대관장님이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흔치 않은 상황이 또다시 우리와 김볼 대관장님 사이에서 몇 분 동안 펼쳐졌습니다. 그 분과 함께한 짧은 순간은 너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분의 가르침은 영원한 것이었으며 이 젊은 청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친구의 아들과 저는 이 짧은 순간 동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이 이 젊은 청년을 따뜻하게 감싸 주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그를 크게 감화시켜 주었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할 때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걸세.” 그날 하나님의 예언자는 예언자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분을 통해 구세주께서는 청년의 생활에 영향을 주어 주님의 빛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네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을 아신다고 생각한다.



주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너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영향력을 오늘 느끼게 해주셨다고 확신한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태도가 바뀌었고, 방향이 분명해졌으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후에 김볼 대관장님께 이 훌륭한 청년이 전임 선교사로서 충실하고 근면하게 봉사하고 있음을 보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 구세주의 손길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의 가정에 온 예쁜 여자 아기는 겨우 5개월도 채 못 살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 아기를 극진히 사랑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어린 손녀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기가 숨지기 바로 전날 밤에 우리는 아들 내외에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의 집에서 며느리와 저는 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병원으로 돌아와서 어린 손녀의 손을 잡고 얼굴을 들여다보았을 때, 저는 구세주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서 마치 손녀가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저는 괜찮을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구세주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곧 손녀는 하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같은 하늘의 손길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나간 청소년, 저활동 성인, 미망인, 노인, 병자, 그리고 도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복음의 축복과 주님의 평화를 느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유익을 위해 구세주의 손길을 느끼도록 해줄 때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잘 알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이 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를 통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도록 결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구세주의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권고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

1980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어린 손녀의 손을 잡고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을 때, 저는 구세주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서 마치 손녀가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저는 괜찮을 거예요.”





가족을 강화함

# 가족은 창조주의 계획의 중심이다

여러분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연구하고 활용하도록 통찰의 기회를 주는 연재 기사

“우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sup>1</sup>

## 가족을 파괴하려는 노력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인 가족이 모든 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간음, 이혼, 혼전 동거, 자녀 및 배우자 학대, 동성애, 낙태, 십대 임신, 외설물, 불순종하는 자녀, 경제적인 어려움, 결혼한 부부간에 늘어가는 자녀 출산과 양육의 책임 기피 현상—이상의 모든 것들은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에서 핵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사탄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사탄은 영원한 행복의 계획에서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의 신성함을 파괴하고, 남성과 여성이 지닌 역할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하며, 부모덕을 조장하여 성스러운 순결의 법을 어기고,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도록 하는 데 주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sup>2</sup>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 결국에는 선이 악을 이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곳에서 우리는





## 세상에 가족 단위를 만들어 내고 완전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세에서 시작된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어야 하며 가족의 신성함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

###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첫번째 일은 가족을 영원토록 결속시켜 주는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르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세상에 태어나서 성전에서 결혼을 할 때까지, 복음의 체계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현세와 내세에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는 거룩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 세상에 가족 단위를 만들어 내고 완전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sup>3</sup>

성전 결혼은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실제, 즉 영원한 가족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주님의 집에서 맺은 성약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교회의 율법에 따른 결혼은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의식입니다. 결혼 성약을 지키며 생활하는 부부는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충만한 승영을 얻게 됩니다.”<sup>4</sup>

### 영원한 구원-가족의 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가족의 일입니다. 복음 계획은 영원한 가족 평의회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은 지상의 가족을 통해 수행되며, 그 운명은 우리의 영원한 가족 안에 있습니다.”<sup>5</sup>

“가족의 일원으로 출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의 자녀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 택하신 방법입니다. 결혼과 가족 관계는 그분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비하신 핵심적 방법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아니라, 도전과 반대와

어려움과 유혹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인생의 교훈을 배웁니다.”(니파이이서 2:11 참조)<sup>6</sup>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문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신앙을 강화하고 순종을 배울 수 있는 환경으로 보아야 한다. 칠십인 정원회의 조 제이 크리스텐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고군분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sup>7</sup>

가족은 우리가 악을 물리치고, 약점을 극복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일차적으로 도움을 주는 조직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는 혼란과 반대로 가득 찬 오늘날의 세상에서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 타락해 가는 세상에서의 희망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가족을 파괴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단합되고 사랑스러운 가족이 주는 기쁨과 축복에 대한 희망을 잃어 가고 있다. 이러한 어둠 속에서 회복된 복음의 가르침과 의식은 유일한 희망의 햇불로서 빛을 비친다. 우리가 가족을 복음의 확고한 기초 위에 세울 때, 우리의 빛은 더 밝게 비칠 것이며, 희망이나 행복을 주지 못하는, 악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그러한 것을 찾는 사람들을 이끌게 될 것이다. ■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2. “영원한 가족”,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65쪽.
3. Conference Report, 1970년 4월, 27쪽.
4. *구원의 교리*, 브르스 알 맥콩키 편, 2권, 74쪽.
5. “Parental Leadership in the Family”, *Ensign*, 1985년 6월호, 7쪽.
6. Daniel K Judd, Guy L. Dorius, and David C. Dollahite, “Families and the Great Plan of Happiness”, in David C. Dollahite, ed., *Strengthening Our Families: An In-Depth Look at the Proclamation on the Family*(2000), 8쪽.
7. “탐욕과 이기심과 지나친 방종”,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0쪽.

# 성탄절 십자수

어머니께서 성탄 절기에 돌아가신 후,  
우리는 다시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데이비드 토이

**나**는 초보 아버지이다. 지금 나는 한결같이 영원한 가족을 바라고 있고 또 필요로 한다.

영원한 가족에 관한 원리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아버지께서 칭찬하셨을 때, 어머니께서는 성전에 가는 것에 관한 확신을 편지를 통해 전하셨고, 그 편지는 우리 가족에게 매우 소중하게 여겨져 왔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성전 결혼은 영원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됩니다. 성전에서 결혼하고 그 서약에 따라 생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하늘에서 그들의 부모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 단위는 현세 그리고 영원토록 보존됩니다. 스티브, 내일 태양이 떠오를 것을 제가 분명히 믿고 있듯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요. 또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무척 사랑하시고, 당신도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분이 진리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성전 결혼 이외의 다른 어떤 관계도 죽음 이후에는 보존하실 수 없다고 믿고 있어요.

“스티브, 제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을 사귀는 지 이제 이 년 반이 되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제게 얼마나 더 소중한 사람이 될까요? 다가올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대답을 드릴

수가 없다면 훗날에는 정말 그 결과를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성약이 없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인생을 꾸려 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기치 않은 시련 속에서 잃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교회에 들어와야 한다고 결심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했다. 어머니께서는 결혼을 결심했고, 부모님은 현세와 영원을 위해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성전 결혼을 통해 얻은 마음의 평안으로 인해 아버지의 간증은 강화되었고, 그 마음의 평안은 훗날







## 한

살 된 여동생이  
제일 먼저  
선물을 골랐다.

어머니가 준비한 십자수가  
들어 있는 액자의 포장지를  
아버지가 대신 풀었다.  
거기에는 “우리의 사랑의  
고리는 영원하다.”라고 적혀  
있었다.

의미 있는 세월로  
이어졌다.

1987년 12월 19일, 토요일 이른 아침에 우리 가족은 성탄절 쇼핑을 끝내고 템플 스퀘어에 장식된 조명을 구경하러 아이다호 주 셸리에서 유타 솔트레이크시티까지 가는 네 시간 여행을 위해 밴에 올라탔다. 느낌은 덤덤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여행을 했었기에 나는 곧바로 뒷자리에서 잠들었다.

한 시간이 채 안 되어 나는 차가 왼쪽으로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덜컥거리는 바람에 두려움에 싸여 잠에서 깨어났다. 그 순간 갑자기 나는 차에서

튀겨 나가 눈으로 덮인 차가운 도로변 뒤로 내동댕이쳐졌다. 바로 그 직전에 어머니는 한 살 된 자녀에게 수유한 후에 아기용 차량 의자에 앉혔지만 미처 안전 벨트를 채우지는 못했다. 뒤편에서 우리 차가 구르는 소리를 들으며, 또 내가 잠에 떨어졌던 상황을 기억하려 애쓰며 나는 앉아서 엉덩이를 문질렀다.

우리 차가 정지했을 때 한동안은 모든 것이 고요했다. 그런 다음 찌그러진 차가 내 시야에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기



그림: 윌리엄 기턴스, 요셉 스미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자주 생각해  
본다.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똑같은  
사귀임이 하늘에서도  
있으리니, 다른 것은 다만  
그곳에서는 우리가 지금  
향유하지 못하는 영원한  
영광이 함께 따르는  
것이니라.”

시작했지만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었는지는 그때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약간의 타박상을 입고 몹시 혼란스러워 하면서, 파손된 차와 가족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타이어에 기대 앉아 계신 어머니 쪽으로 걸어가 어머니지를 물었다. “잘 모르겠어.”라는 애매한 대답이 겁먹은 내 마음을 안심시켰다.

몇 분이 지나자 구급 헬리콥터가 도착하여 어머니와 다섯 살 된 남동생 조시를 병원으로 급히 실어 갔다. 나는 부상당한 우리 가족을 응급실로 실어 갔던 두 대의 구급차 중 한 대에 올라탔다. 등쪽에 단순 찰과상으로 인한 통증이 있었던 내가 가장 적게 다친 사람이었다.

우리 가족은 개별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검사실에 분산되었다가 한 시간 남짓 지나 아버지의 요청으로 작은 병실에 다시 모였다. 나는 방 주위를 둘러 보며 가족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치료는 일시적으로 지연되고 있었고 이런 예기치 않은 비극의 결과에 관해 걱정되기 시작했다. 두 명이 보이지 않았다. 조시와 어머니였는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조시는 혼수 상태에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은 기억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엄마가 돌아가셨단다.” 아버지는 눈물을 떨구시며 중얼거리셨다.

마음이 내려앉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이러한 말을 하는 순간 방 안은 한동안 고요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지?” 아홉 살 된 사라가 물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의 말로 이렇게 대답하셨다. “잘 모르겠구나. 우리가 어떻게든 해 나가야겠지.”

사고 후 겨우 6일만에 맞은 그 해 성탄절은 다른 해와는 달랐다. 우리는 조시가 회복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성탄 행사를 미루었다. 우리의 특별한 성탄절 행사에 일곱 명의 형제 자매들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선물을 열기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 주위에 둥그렇게 모였다. 가족의 전통에 따라 가장 어린 한 살 된 여동생이 먼저 선물을 집었다. 여동생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을 위해 준비했던 선물을 선택했다.

아버지가 포장을 풀었는데 거기에는 십자수로 “우리의 사랑의 고리는 영원하다”라고 적힌 액자가 있었다. 그 짧은 말 속에 들어 있는 의미는 어려웠던 그 시기에 가족에게 평안을 가져다주었으며, 그 속에 있는 원리는 우리가 다시 어머니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지식으로 우리를 함께 묶어 주었다.

거의 17년이 지난 지금 나는 내 자신의 가족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영원한 가족에 관한 강력한 진리를 되새겨 본다. 어머니를 다시 보고 싶다는 소망뿐 아니라 내 아내 그리고 갓난아기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도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내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고 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을 자주 생각해 본다.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똑같은 사귀임이 하늘에서도 있으리니, 다른 것은 다만 그곳에서는 우리가 지금 향유하지 못하는 영원한 영광이 함께 따르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0:2)

오래 전에 우리가 포장을 풀었던 십자수는 여전히 우리 가족의 거실 벽에 걸려 있고 그것은 나와 나의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나게 해 주며,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에서 계속되는 희망을 주며,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준다. 이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능하게 된 영원한 가족에 대한 약속 때문이다. ■

데이비드 토이는 켄터키 렉싱턴 스테이크 테이블즈 크리크 와드의 회원이다.



#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발신: 나  
수신: 당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0:35 참조)



# 어떻게 제가 간증할 수 있었을까요?



**한스 에이치 매트슨 장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유럽 중부 지역

여러 해 동안 저는 크나큰 감사의 마음으로 이터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서 발산되는 힘을 느껴 왔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 쌍둥이 형제와 저는 영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스웨덴 예테보리의 집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가는 동안 수많은 생각들이 제 머리를 스쳐 갔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제 동생과 런던에서 헤어져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에서 처음으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들은 언어 훈련이나 그 밖의 다른 어떠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곧바로 선교 임지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제 동생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생은 언어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제 관심은 기술적인 과목에 한층더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를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았습니다.

런던에 도착했다가 최종적으로 영국 중부 선교부가 위치한 버밍햄에 도착하니 선교부장 부부가 환한 미소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제가 선교부 사무실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행복했고 열의가 있었으며, 또한 학습 지도서, 길 전도, 동반자 등과 같은 것들에 관해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가

새롭고 낯설었기 때문에 많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의 친절에도 불구하고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낯선 언어로 복음에 관해 어떻게 간증할 수 있을까? 저는 첫날 밤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를 이 곳으로 보내신 이유와 혹시 이렇게 된 게 실수는 아닌지를 여쭙어 보았습니다.

다음날 선교부장 보조(AP 선교사)가 제게 성구를 하나 보여 주었는데 그것은 이터서 12장 27절이었습니다. 저는 스웨덴어 물몬경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내 앞에 이를진대 내가 저들의 연약함을 보이리라. 내가 사람을 연약하게 하였음은 저들로 겸손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은혜는 내 앞에 겸손하게 임하는 자 모두에게는 흡족할지니, 저들이 내 앞에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로다."(이터서 12:27)

누구나 연약함을 갖고 있다면,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질문들이 솟아났습니다.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필요한 신앙을 행사할 용기를 갖고 있느냐? 너의 연약함이 너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 앞에서 네 자신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느냐?

쌍둥이 동생과 제가 십대 청소년이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신앙에 의지하기 보다는 우리 자신의 간증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권고하셨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그 분의 권고에 따르기로 작정했었습니다. 저는 노력을 기울여 몰몬경을 주의 깊게 읽고 상고했으며, 읽은 것이 참된지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정말로 그가 묘사한 거룩하고 놀라운 나타내심을 듣고 보았는지를 여쭙었습니다.

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의 영이 제 위에 임했습니다. 제가 읽은 것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었던 것들이 참되다는 확신이 제 마음 안에서 불타 올랐습니다. 드디어 저는 몰몬경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한 복음의 회복에 관해 간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전하는 젊은 선교사로서 저는 이 경험을 돌이켜보고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확신을 주님께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터서에서 읽은 구절이 또한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면서 저의 선교사 부름과 언어에 대한 저의 약함에 관한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는 70페이지에 달하는 공과와 성구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하고 암기하겠다고 그분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언어를 배워서 그분과 그분의 아들에 관해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아침 일찍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여기 제가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나는 이터서의 성구가 참되다는 것을 간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능력, 즉 제가 선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약점이었던 것이 어느덧 강점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평생 동안 제게 축복이 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교회 부름이 제 능력을 넘어선다고 여러 번 생각했었습니다. 그 때마다 영이 제게 증거했으며 또 제가 영국에서 젊은 선교사로서 가졌던 경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크나큰 감사의 마음으로 이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서 발산되는 힘을 느껴 왔습니다. 영의 권세를 통해 그 말씀들은 우리 각자에게 힘과 인도,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

**매** 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하겠다고 그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분께서 도와 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

로버트 알 스튜어 장로

철심인 정원희



왜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야 하는가?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 문경 끝부분에 있는 참으로 적절한 끝맺음에서 예언자 모로나이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모로나이서 10:30, 32)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호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생깁니다. 왜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야 하는가?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왜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야 하는가?

세상은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게 “나아와야” 하는지에 관해 많은 선택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종교, 철학, 사회 제도, 정치 이데올로기, 그리고 사업이나 개인적 관심사는 우리의 환심을 얻으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이르는 길이 많이 있고 또 어느 길을 택해 가는 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성역 기간 중 수천 명이 그분을 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호기심이었거나 어떤 것을 바랐을 것입니다. 그분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들을 먹이셨으며 그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요한복음 6:48)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이들은 요구 받게 될 순종에 관해 배운 후 그분에게 더 이상 나아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이사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67절)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68~69절)

왜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야 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다른 모든 길들이 영생으로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담대히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경전은 “정결치 아니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면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정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 흠 없이 서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니파이삼서 27:19~20 참조; 또한 모로나이서 10:33 참조)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유일한 이름, 길 또는 방편입니다.(모사이아서 3:17; 힐라맨서 5:9 참조)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구세주를 바라보며 성신의 인도를 구해야 할 때 오히려 그릇된 장소, 즉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고귀한 생각과 느낌에 따르겠다고 결정할 때, 우리의 성품은 고결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1873~1970)이 말씀했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관해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바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로 결정할 것입니다.”<sup>1</sup>

###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는 신성한 계획에 의해 끊임없이 중요한 결정에 직면하며, 다음과 같이 자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토록 크나큰 고통과 증오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그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결국 우리는 그 모든 답을 알지 못하며 또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그 가르침을 잘 따르게 될 것이며, 아브라함처럼 “의를 좇기에 더욱 큰 자”(아브라함서 1:2)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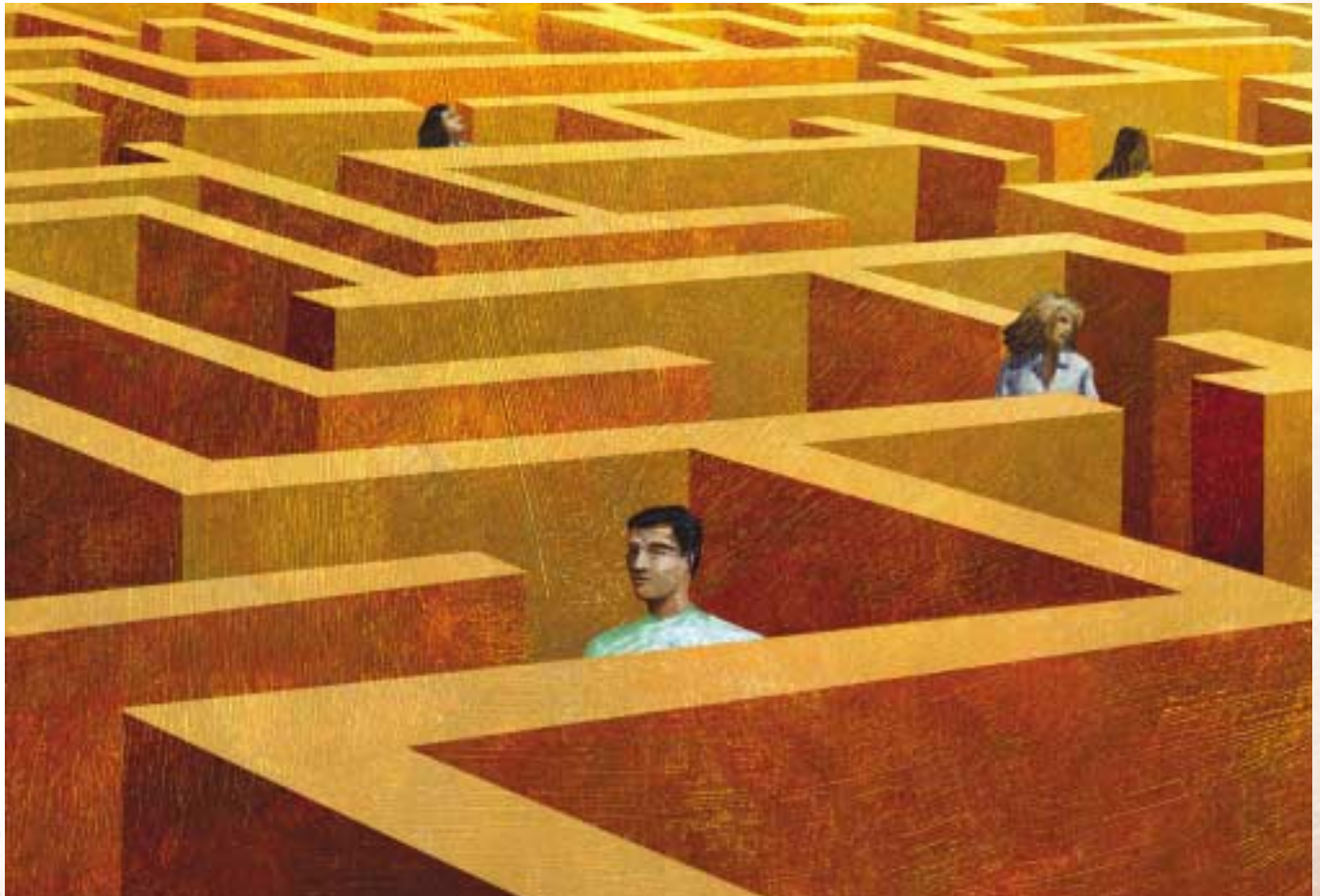
우리는 조용한 명상의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가리얏히고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전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심어 주신 승고한 직감에 순종하십시오.”<sup>2</sup> 계시자인 성령의 책임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로나아서 10:5~7; 교리와 성약 11:12~14 참조) 우리가 “성신[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모사이야서 3:19)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을 견디면서 순종과 희생의 율법에 겸손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개인적 합당성을 발전시키며 부드럽고 이해하는 마음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피할 수 있다면, 요구되는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의 행위는 “회개에 합당[하게]”(앨마서 9:30)

**세** 상은 하늘에  
이르는 길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믿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상화: 그레그 리얼리





**곧** 은 길은 여전히  
 육으로 난  
 인간과  
 그리스도의 제자 사이에서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됩니다.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은 그분의 길이 됩니다.

이 좁고 곧은 길에 들어선 우리는 때때로 이 길이 왜 그리 곧지?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길이 우리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은사인 시간을 허비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압니다. 곧은 길은 여전히 육으로 난 인간과 그리스도의 제자 사이에서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삶에서 성신의 축복과 임재하심에 의해 자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식과, 교육과, 정정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신권을 명예롭게 하고 거룩한 의식에 참여할 때,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4:20 참조)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니파이이서 32:3) 주실 것이며, 겸손하고 뉘우친 사람 이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할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앨마서 27:18 참조)

경전을 탐구해 봄으로써 우리는 구세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8:34~36 참조)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분의 계획과 고난을 느끼고 알게 될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분의 속죄가 우리를 더욱 그분과 가깝게 해줄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를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그분이 함께하실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겠다고 선택할 때 진정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분의 속죄의 사랑을 맛보는 것은 한량없는 기쁨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내리게 될 최선의 결정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

**주**

1. Conference Report, 1951년 4월, 93쪽.
2. “얼마나 천사에 가까운 존재입니까?”,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97쪽.



## 봉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낌

**기** 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 봉사는 어떻게 우리가 구세주와 그분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가게 해주는가?

**교리와 성약 76:5~6:** “나 주는 ...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로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생애 중에 받은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멋진 것은 주님께서 저를 통해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바로 그 느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겠느냐?”, 성도의 빛, 1998년 2월호, 7쪽)

###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봉사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손으로 남을 돕는 행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행하는 봉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가 됩니다. 그러한 봉사에는 이기적인 야심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에 의해서만 동기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까?”, 성도의 빛, 1985년 1월호, 13~15쪽)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도와 주시는 것이 항상 그분이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라는 과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귀찮은 일처럼 여겨지지만 막상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얼마나 가볍게 느끼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때, 우리는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방편, 즉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손을 통해 이러한 필요 사항이 충족될 수 있는 상호부조회라는 방편을 주셨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으며 얼마나 이것에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도움을 줌”, *The Rock of Our Redeemer: Talks from the 2002 BYU Women's Conference* [2003], 53~54쪽)

**켄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봉사하라는 부름은 마음속으로부터 우리나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 여러분은 구세주를 대표하는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간증하는 음성은 그분의 음성과 동일한 것이 되며,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키는 여러분의 손길은 주님의 손길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은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성신을 보내시어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증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어려운 시간처럼 보이는 것들은 후에 돌아켜보면, 축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가 그분을 위해 여러분이 대신 봉사한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을 고양시켜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부름을 수행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5~78쪽) ■

배경: 사진 촬영: 존 루크, 원래: 사진 촬영: 매트 라이어, 모델: 사진 촬영

# 강한 손과 사랑의 마음



방문 교육은 복음 안에 속한 자매들로서 사랑으로 손을 뻗쳐 서로를 돌보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제**가 30여 년 전에 처음 방문 교육 교사로 부름 받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제게는 교회에 전혀 오지 않고 있던 한 젊은 자매가 지명되었습니다.”라고 캘리포니아 쿠키몽가 랜초 스테이크 힐사이드 와드의 캐서린 카 험프리 자매는 회상한다. “그 당시 1970년대 초에 그 자매는 제게 히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매달 충실하게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안쪽 문은 열어 주었지만 방충망 문은 닫혀진 채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명랑하게 바라보며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예요, 자매님의 방문 교육 교사입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오늘 우리의





메시지는 ...'이라고 말하며 마음을 고양시켜 주는 다정한  
말들을 짧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녀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싶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렇게 한 지 일곱, 여덟  
달쯤 되었을 때 감독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감독님이 말했습니다. '캐시, 자매님이 방문해  
가르치는 그 자매의 아기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와 남편이 묘지에서 간단한 장례식을 치르려  
하는데 자매님이 와서 함께 있어 줄 수 있는지를 내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로는 자매님이 유일한 친구라고 하던데요.'

"저는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그 자매와 남편, 감독, 그리고 제가  
무덤가에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가서  
겨우 몇 분



정도만 그녀를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방충문 때문에 그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가 없었지만, 제가  
희망을 갖고 서툴게 행한 방문이 우리 두  
사람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봉사의 모습들이 교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거듭 반복되고 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보니 디 파킨 자매는 최근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충실한 자매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큰 무리를 이루며 주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서 단순하지만 중대한 봉사를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우리가 방문 교육을 합니까? 자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성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앨마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모사이야서 18:8~9)  
...

"어느 날 아침 ... 저는 대학 시절의 친구에게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레이가 오늘 아침 사망했어.'라고 적고는  
'방문 교육이 효과가 있어. 정말로 효과가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 저의 친한 친구는 우리가 방문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로  
단순한 방문이나 한 번의 생각 보다도 훨씬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게 간증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연결해 주는  
방편입니다. ...

"애통해하고, 위로해 주고, 증인이 되십시오. 그 모든  
약속들이 제 친구를 위해 함께 왔습니다. ... [주님이] 그분과  
성약을 맺었던 두 자매를 보내셨습니다. ... 그들은 복음  
안에서 맺어져서 마음과 영혼을 다해 이 사업을 행하는  
그들의 책무를 이해했던 자매들이었습니다. ... 그것이  
방문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파킨 자매는 이렇게 덧붙였다. "방문 교육은  
상호부조회의 핵심입니다."<sup>1</sup>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는 상호부조회의  
두 번째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함께  
앉아 있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sup>2</sup>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다. "방문 교육의 목적은 각 자매끼리  
보살피는 관계를 구축하고 지지와 위안과 우정을 나누는 것이다.  
방문 교육에서는 방문을 하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축복을 받으며  
서로 보살핀다는 관심을 통해 그들의 교회 활동이 강화된다."<sup>3</sup>



사진 촬영: 존 루크, 표지 재인: 맨 왼쪽: 사진 촬영: 엘든 시 언더슨; 오른쪽 촬영



## 다른 사람의 좋은 조연자가 됨

새롭게 상호부조회에 편입된 젊은 자매들에게 방문 교육이 상호부조회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자매를 모범적인 방문 교사에게, 때로는 그 자매의 어머니를 동반자로 지명함으로써 훈련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브리감 영 대학교 제2스테이크 176와드에 있는 카라 에스 롱모어 자매는 어머니가 그녀의 방문 교사 동반자로 함께 부름을 받았다. 어머니는 기분이 좋았지만 카라자매는 상호부조회에 가기에는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는 두 명의 훌륭한 자매님들에게 지명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어려웠던 시기에 이 자매님들이 제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분들은 제게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였습니다. 그저 나이 든 조연자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저는 차분하고, 안정되고, 참된 사랑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대학에 다니지만 당시에 방문 교육을 위한 방문들이 우리 관계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를 바라보고, 그분의 강한 간증을 듣고, 어머니가 ‘시온의 자매들 [찬송가, 198장 참조]에 대해 갖고 있던 사랑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고마운 따름입니다. 우리가 한 팀으로 일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또한 우리가 ‘시온의 자매’ 들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 지키고 보살핌

방문 교사들은 매달 방문을 권고 받지만, 어떤 여건에서는 더 많은 방문을 필요로 한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1895~1985)은 이렇게 말씀했다. “많은 면에서 여러분의 의무는 가정 복음 교사들의 의무, 즉 간단히 말해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는’ 것, 즉 한 달에 20분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며’,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고양시키고 강화시키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sup>4</sup> 이런 형태가 “지키고 보살” 피는 방문 교육이다.

병원에서 야간조로 일하는 한 자매는 지키고 보살핌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다. 그녀의 방문 교사들은 매달 야식 시간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녀를 찾아갔다. 야식 시간은 정말로

꼭두새벽에 있었다. 그녀는 방문 교사들이 그러한 희생을 기꺼이 한다는 것에 무척 놀라워했고 정말로 고마워했다.

앨버타 캘거리 스테이크 헤리티지 와드의 신시아 이 라슨 자매는 힘든 방문 교육 임무 지명과 함께 지키고 보살피는 기쁨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처음으로 디에나를 방문했을 때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우리와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독신으로 석유 회사의 임원이었고, 최근 개종자였습니다. 하지만 방문할수록 우리에게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암에 걸린 후 그녀는 제 질문에 정직과 용기로 침착하게 대답하면서 제 염려를 덜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품위와 참을성이 무엇인지를 제게 모범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암에 관해 열성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녀는 상호부조회를 위한 암 교육의 받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지역의 암 후원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약물 치료와 화학 요법 치료가 디에나의 힘과 에너지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기운이 나는 날’에는 다른 암 환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아픈 날’에는 낙천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힘을 비축하고 간증을 쌓았습니다.

“디에나의 상태가 더욱 나빠지자, 우리는 매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울고, 멍하니 있기도 하고, 참으로 진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막연히, 그러다가 후에는 확실하게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디에나는 하루하루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디에나가 죽기 전 몇 달 동안 저는 친한 친구이며 복음 안에서 자매가 된 그녀가 봉사할 기회를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제가 그녀의 방문 교사로서 봉사를 했지만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축복에 관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오히려 디에나였습니다.”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저희 회원들 중에도 고통, 역경, 외로움, 두려움 등으로 절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누군가가 굶주렸을 때 먹이거나 돕고 용기를 주며, 진리와 의에 목말라 할 때 그 영을 양육해야 할 크고 엄숙한 임무가 있습니다.”<sup>5</sup>





### 융통성

지키고 보살피는 것은 분명히 방문 교육의 목표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창의성과 융통성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 부시 지방부에서는 대체로 눈썰매차를 타고서만 방문할 수 있다. 인근의 강이 차가 다닐 정도로 꽁꽁 얼어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방문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가장 권고되는 방법인 월례 방문으로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자매들은 전화나 전자 우편을 통해 마음과 정을 이어가야 한다. 파킨 자매는 이렇게 권고했다. “월례 방문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만히 있지는 마십시오. 창의성을 발휘하여 각 자매를 연결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sup>6</sup> “최선을 다하십시오”라는 헝클리 대관장의 격려의 말씀을 기억한다.<sup>7</sup>

나이저리아의 플로렌스 추크우라 자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녀는 결혼 생활과 가정에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한 자매에게 방문 교육을 하라는 지명을 받았는데, 방문을 위해서는 그 자매를 시장에서 만나야 했다. 이 자매의 어려움

처지를 듣고 보고 난 후에 추크우라 자매는 어려움에 빠진 자매를 돕는 방법을 알기 위해 남편에게 신권 축복을 부탁했다. 축복을 받은 후 그녀는 십일조의 중요성에 관해 그 자매와 이야기해 보라는 속삭임을 받았다. 추크우라 자매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녀는 수입이 적어 십일조를 내지 못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둘이서 함께 말라기 3장 10절을 읽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집에서 읽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이야기 후에 저는 신앙을 행사하고 적어도 여섯 달 동안 십일조를 내라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영으로써 그녀에게 간증했습니다.”

이런 만남이 있고 몇 달 뒤에 그 자매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다고 추크우라 자매는 간증한다. 그녀의 딸이 장학금을 받아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고, 남편은 감독의 노력을 통해 활동화 되어 부름을 받았으며, 재정 상태와 결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가 함께 노력했고, 결국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었다.

**방** 문 교육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지와  
위안과 우정을 나눔으로써  
보살피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어떤 여건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방문을  
필요로 한다. 방문 교사들이  
더 많이 베푸는 것은  
책임이며 특권이다.







# 자

신의 마음과 영혼을 방문 교육에 쏟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에 관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주님의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듣고 따를 때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다.

## 우정을 나눔

한 젊은 자매는 그녀의 방문 교사가 어떻게 자신에게 보살핌, 염려, 우정의 정신을 나누어 주었는지를 기억한다. 그녀는 법과 대학원 마지막 학년 말에 새 와드로 이사를 했고 자신이 그곳에서 나이차가 30년 정도나 되는 가장 어린 회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한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저는 어중간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마치 그림자처럼 교회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몇 주 후에 활력에 넘치고 유머가 있는 머리가 하얀 자매님이 제 집에 나타나셔서 저의 방문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거의 매주마다 그 분의 방문을 받았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귄 수 있도록 그 분은 여러 차례 와드의 다른 자매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오래지 않아] 저는 교회에서 그림자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제 방문 교사께] 저를 수많은 친구들에게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그 와드에서] 여러 해 동안 떨어져 생활하고 있지만 저는 그 회원들을 아직도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sup>8</sup>

## 영감에 따름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방문 교육에 쏟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에 관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주님의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듣고 따를 때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엘리자베스 콘티에리 케메니 자매는 남편이 회사 업무로 자주 출장을 가기 때문에 혼자서 교회에 참석하는, 수줍음 많고 현재 임신 중인 한 자매에게 자신이 직접 방문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와드 상호부조회는 이제 막 신생아 용품 세트, 즉 유아를 위한 담요, 의류와 기타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를 만드는 스테이크 활동에 참여한 상태였고, 이 세트를 어느 일요일 아침에 스테이크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그날, 케메니

자매는 신생아 용품 세트를 스테이크 보다는 이 자매의 집으로 전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고서 새벽 6시에 잠에서 깬다.

그녀의 보좌 그리고 감독과 함께 케메니 자매는 이 자매의 아파트에 도착하여 그녀가 이미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병원으로 급히 들어간 일행은 눈물을 흘리며 갓난아기를 팔에 안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도울 누군가를 보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남편은 다른 도시에 있었고 그녀는 아기를 덮을 담요도 집에 오는 버스를 탈 돈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날 오후 이 와드는 스테이크 모임에서 제출할 신생아 용품 세트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미 한 자매를 세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돕기 위해 써 버린 상태였는데, 이것은 순전히 한 방문 교사가 기도하고,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다.

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상기시켜 주었다. “도움이 필요하고 또 절망적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사랑의 정신으로 그들을 들어 올려 교회의 품 안에 안기게 하고... 그곳에서 강한 팔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지지하길 바랍니다.”<sup>9</sup> 방문 교사로서 여러분은 이러한 책임과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

## 주

1. *Visiting Teaching: The Heart and Soul of Relief Society*(상호부조회 공개 전시회에서 행한 말씀, 2003년 가을) 3~4, 15~16쪽.
2. *History of Relief Society, 1842~1966*(1967), 20쪽에서 인용.
3. *교회 지침서, 제2권: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199쪽.
4. “A Vision of Visiting Teaching”, Tambuli, Dec. 1978, 2쪽; *Ensign*, June 1978, 24쪽 참조.
5. “구조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86쪽.
6. *Visiting Teaching: The Heart and Soul of Relief Society*, 12쪽.
7. “교회의 여성들”,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69쪽.
8. Barbara B. Smith, “A Story of New Beginnings” in *A Woman's Choices: The Relief Society Legacy Lectures*(1984), 8쪽에서 인용.
9.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86쪽.



# 알고 계십니까?



## 성탄절의 참된 정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은 성탄절 정신을 활짝 피게 합니다. 적이 용서 받고 친구가 기억되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성탄절 정신은 영혼의 창을 비추어 주며 바쁜 세상 생활에서 눈을 돌려 물질이 아니라 사람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축복”, 성도의 빛, 1995년 12월호, 3쪽.

##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 참된 성탄절 이야기

우리의 완전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 즉 영생을 받을 자격을 우리가 갖도록 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4:7 참조)



여러분이 구세주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지상에서의 그분의 성역에 관한 이야기도 읽으십시오. 이기심 없이 주셨던 그분의 모범은 이 성탄절에 봉사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삽화: 글렌 에스 홉킨스; 그림: 델 파슨,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

## “Stille Nacht”(고요한 밤)

어느 날 크리스마스 캐럴 하나가 처음으로 작사, 작곡되어 연주되었다. 1818년 성탄절 전야에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교회의 오르간이 작동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오베른도르프 소재의 지역 교회 보조 사제였던 조셉 모어는 저녁 예배에 음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번쩍이는 영감으로 새로운 찬송가를 작사했다. 그는 가사를 교회 오르간 반주자인 프란츠 그루베르에게 가져갔고 그는 자신의 기타로 연주할 수 있는 멜로디로 작곡했다. 프란츠와 조셉은 그날 밤 아름다운 새 찬송가 “고요한 밤”을 연주했다. 이 찬송가의 명성은 삼시간에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찬송가, 134장 참조)



# 예언자의 탄생지



재닛 토마스  
교회 잡지

거의 200년 전인 1805년  
12월 23일에 버몬트 주  
샤론에서 태어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말일에  
복음을 회복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그의  
탄생지는 평화스런 곳이다.

**미** 국 북동부의 버몬트 주, 중간 쪼에 샤론과 남 로얄튼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고속도로를 지나는 대부분의 차와 트럭들은 이 작은 마을들을 무심코 지나간다. 그러나 매년 많은 여행객들이 교회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관해 더 많이 알려는 목적으로 89번 고속도로 상의 2번 출구로 빠져 나와 샤론 읍내로 천천히 진입한 후, 진짜 단풍 시골을 파는 시골 상점을 지나 낫쇠로 만든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 이를 때까지 강을 따라간다. 표지판은 이 여행자들이 데어리 힐(Dairy Hill)로 올라가 나무로 우거진 언덕 위의 작은 농장들을 지나고 단풍나무 가로수가 길 양 옆에 늘어선 작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 준다. 또 다른 표지판은 바로 이 곳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태어난 곳을 일러준다. 이 곳이 위대한 사건과 위대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거의 일백 년 전에 건립된 기념관으로 가는 입구이다.

좁은 도로로 들어선 방문자들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하얗고 아름다운 말일성도 예배당으로, 그 앞에는 경사진 잔디밭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좁은 도로를 따라가면 사탕단풍 사이에서 어떤 변화를 눈치채게 된다. 즉 고요하고 평화스런

느낌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변화를 감지한 최초의 사람도 아니고 마지막 사람도 아니다. 미들버리 지부의 케빈 버크홀더는 가족과 함께 이모님을 모시고 탄생지를 방문했던 일을 기억한다. 그들의 차가 사유지로 들어오자마자 케빈은 이모님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지?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라고 물었던 일을 기억한다. 케빈은 설명을 하려 애쓰며 이렇게 말했다. “그냥 볼 때는 어느 다른 장소와 별로 다른 것이 없지만 정말로 특별한 영이 있습니다. 이모님이 교회에 관해 미심쩍은 느낌을 갖고 있다면, 말끔히 없어질 거예요. 여기서는 아마도 이모님의 생각이 훨씬 깨끗해지는 것 같을 거예요.”

버몬트 몽펠리에 스테이크 에섹스 와드에서 온 캐틀린과 같은 십대 청소년들은 종종 요셉 스미스 탄생 기념지로 간다. 그녀는 또한 그 장소에서의 느낌에 관해 “거룩한 곳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도 평화롭고 고요합니다.”라고 말한다.

방문자들이 차를 몰고 예배당을 지나, 조금 내리막길로 가면 거울에 반사되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한 현관들이 있는 두 채의 나지막한 벽돌 건물로 이어진다. 하나는 방문자 센터이고 다른



왼쪽: 리사, 김, 마이클  
 프랜시스도 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언자  
 요셉의 탄생지에 있는  
 기념비 앞에 서있다. 위쪽:  
 인근 벌링턴에서 온 에섹스  
 와드의 청소년들은 탄생지를  
 즐겨 방문한다. 아래쪽:  
 메간 트레이시가 요셉의  
 출생 당시 오두막집이 있던  
 곳을 표시한 표지를 읽고  
 있다.







하나는 탄생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의 사무실이다. 그 건물들은 기념비로 이어지는 계단의 양편에 있다.

오후의 태양이 탑의 전면을 비추자 마치 조명탑이 켜진 듯 기념비를 불꽃처럼 만들었다. 여름에 기념비는 꽃과 정원으로 둘러싸이지만 겨울에는 예언자 요셉이 태어났던 12월 23일이라는 계절에 알맞게 언덕은 하얗게 빛나는 눈으로 뒤덮인다. 매년 12월에 버몬트 몽펠리에 스테이크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탄생지에서 예수의 탄생에 관한 실황 성탄극을 갖는다. 이 사적지는 수천 개의 조명등으로 장식된다.

요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는 루시의

**오른쪽 위: 케이틀린 펙이 원래의 오무막집에 있던 벽난로 곁에 서 있다. 맨 위부터: 사우스 로얄튼 와드 건물; 탄생지에 있는 방문자 센터; 에섹스 와드의 스티븐 브라운과 앤드류 로즈**

### 곱게 다듬어진 화강암

기념비는 나즈막한 언덕 위에 세워져 있다. 이 기념비는 잘 다듬어진 화강암 기둥으로 높이가 38.5 피트(11.7 미터)이며 1피트는 요셉의 나이 1살을 나타낸다. 이 기둥은 커다란 사각형 기반에 놓여져 있다. 1905년에 돌을 잘라 냈을 당시 이 기둥은 단일 암석에서 잘라 낸 것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탑이었다. 벌링턴 와드의 크리스틴 시몬즈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그것이 예언자 요셉을 나타내는 정말 좋은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념비는 순전히 돌로 된 초석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우스 로얄튼 와드의 앨리시아 아담스도 이와 비슷하게 “그 기념비는 교회가 놓여진 기초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한다.

### 추가 정보를 얻는 곳

탄생지의 지도와 상세한 정보는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얻을 수 있다. “Church History”, 다음에는 “Historic Sites”를 클릭한다. “Places to Visit”, “Northeastern USA”, 다음에는 “Joseph Smith Memorial Birthplace”를 클릭한다.

아버지, 솔로몬 맥이 소유했던 이 농장에서 몇 년 동안 생활했다. 그들의 아들 요셉 스미스 이세는 아홉 자녀들 가운데 이 곳에서 태어난 유일한 자녀였다. 옛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농장 부지에는 300에이커가 넘는 대지와 기념비를 둘러싼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다.

요셉이 태어났던 12월의 그 추운 날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원래의 오두막집은 오래 전에 무너져 지금은 파편만 남아 있지만 정면 계단과 벽난로의 바닥돌은 그대로 남아 있다.

오두막집의 앞 계단으로 사용되던 돌은 건물 바깥쪽, 대략적으로 원래의 오두막집이 있던 기념비쪽의 벤치 옆에 있다. 벽난로의 바닥돌은 방문자 센터 안, 벽난로 앞에 놓여 있다. 벽난로의 바닥돌 위에 앉아 따뜻한 불 가까이서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 있다. 에섹스 워드 소속의 크리스탈 콜렛과 스테파니 라이트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 스테파니는 “저는 벽난로의 바닥돌 옆에 앉아서 그냥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크리스탈은 “요셉은 바로 이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바로 여기서 옷을 갈아 입혔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 답을 찾음

기념비의 기단에는 열네 살 때 예언자 요셉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한 성구가 새겨져 있다. 그 구절은 이렇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 예언자는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 때의 이 글처럼 나의 마음속에 힘 있게 임한 일은 없었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2)라고 말했다. 버몬트 주에 살고 있어 자주 이 곳에 올 기회가 있는 십대 청소년들은 요셉의 모범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들은 지혜가 부족하면 도움을 간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에섹스 워드의 스티븐 브라운은 이렇게 말한다.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서만 옵니다. 여러분이 발견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고 듣는 것입니다.”

에섹스 워드에 다니는 앤드류 로즈 역시 진리를 알기 위해 간구했던 경험이 있다. “저는 규칙적으로 진지하게 몰몬경을 읽었던 적이 정말로 없었습니다. 저는 몰몬경을 가져다가 ‘이 책이 참된지를 부디 제게 말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소개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으로 압도되었습니다. ‘와, 이제 소개 부분일 뿐인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응답이었습니다.”



삽화: 브라이언 톰

### 요셉의 부모에 관해

예언자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는 뉴햄프셔 주에서 태어났다. 루시가 십대 소녀일 적에 언니 로비나가 사망하자 루시는 큰 슬픔에 잠겼다. 오빠 스티븐이 방문을 하여 루시가 괜찮다면 버몬트 주 턴브리지 마을로 와서 한동안 자기 가족과 머물러 있을 것을 제의했다. 그들은 그것이 루시가 사랑하던 언니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턴브리지에 있는 동안, 루시는 요셉 스미스라는 젊은이를 만나 결혼했다. 결혼식은 1796년 1월 24일에 있었다. 당시 루시는 스무 살이었고 요셉은 스물네 살이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루시가 인생의 대부분 동안 갈구해 왔던 바로 그 진리를 회복할 운명을 지닌 사람, 요셉 스미스 이세의 부모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 젊은 부부, 루시와 요셉 일세는 턴브리지에서 조그만 농장을 갖고 있었고 시골 상점위 그림을 운영했다. 그 상점은 비록 보수되고 확장되기는 했어도 오늘날 아직도 존재한다. 턴브리지에 있는 동안 요셉의 형들인 앨빈과 하이람이 태어났다. 이 젊은 가족은 버몬트 주 샤론 외곽에 루시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한 농장으로 이사했다. 농장 내에 그들이 지은 조그만 오두막집은 샤론과 로얄튼 사이의 경계에 있었다. 아들 요셉이 1805년 12월 23일에 태어나자 요셉 일세는 마을로 걸어가서 아들의 출생을 샤론 군에 신고했다.(Lucy Mack Smith, *History of Joseph Smith*, ed, Preston Nibley [1958] 참조)





**위: 크리스틴 브라운과  
캐틀린 샘프는 연중 어느  
때라도 탄생지를 즐겨  
방문하지만, 여름 동안에 그  
경내의 요셉 캠프에서  
열리는 스테이크 청년  
야영에 참여하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 경내에는  
방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풍 장소도 있다.**

### 진리를 찾아서

요셉이 간구했을 때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버몬트에 있는 에섹스 와드의 십대 청소년들도 요셉이 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간구함으로써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해하게 된 경험이 있었다. 돈 도니는 이렇게 말한다. “요셉의 부모는 참된 교회를 찾으려는 아들의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돈은 또한 요셉이 했던 것처럼 경전을 펼친다.

크리스틴 브라운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것이 제 마음에 오면 불타는 느낌을 갖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압니다.”

캐틀린 샘프는 이렇게 말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일수록 더 생각하고 진지하게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템 도니는 이렇게 덧붙인다. “열네 살 이면 남자 친구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또는 자신이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 걱정을 하는 나이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진리와 참된 복음을 찾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큰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도 무릎을 꿇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것

로얄톤 와드의 청소년들처럼 어떤 십대 청소년들은 일요일마다 예배를 보기 위해 그리고

수요일마다 상호 향상 모임을 위해 탄생지로 온다. 메간 트레이시는 이렇게 말한다. “태어나서 이제까지 줄곧 여기서 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 곳이 얼마나 성스러운 곳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가까이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은 위안이 됩니다.”

케빈 버크홀더는 요셉 스미스 탄생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한다. “숲속 주위를 걸어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사 동산이라 부르는 언덕까지 나 있는 산책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곳에서 기념비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머물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사진: 웨딩: 웨딩 시 멘디스

### 예언자 자신에 관한 말

“나는 높은 산에서 굴러 내리는 커다란 거친 바위와도 같습니다. 어느 모서리가 다른 물체들과 접촉하여 문질러질 때에 저는 비로소 윤기를 얻습니다. ... 그리하여 나는 매끈하고 윤기 있는 화살이 되어 전능하신 이의 화살통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 *History of the Church*, 5:401.

# 시골 소년 그 이상이었다

마크 이 피터슨 장로(1900~1984)  
십이사도 정원회

**예** 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은 신성한 부름에 대해 ... 간증하며 물몬경이 번역되고 발간되게 한 기적에 대한 제 신앙을 ... 선포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다만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참된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다시 회복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물몬경을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번역하여 세상에 출현시키기도 했으며 자신이 살던 시대에 물몬경이

두 대륙에서 출간되게 했습니다. 그는 회복된 영원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계시를 받았으며, 그러한 계시들은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교회 역사 등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았으며 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의 대업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고대에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는 자신의 사명과 간증을 자신의 피로써 인봉했습니다.(교리와 성약 135:3 참조)

그는 세월이 흐른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이름과 명성을 남겼으며,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백성들에게로 전파할



마크 이 피터슨은 1944년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1984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40년간 사도로 봉사했다. 이 말씀에서 그는 요셉 스미스가 미약한 시작이었지만 회복의 위대한 예언자가 되었음을 가르친다.



것이기에, 그의 이름은 더욱 영화로워지고, 그의 부름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된 충실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존중 받고 찬미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말일에 이 위대한 사업을 하도록 하늘에서 예입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온 힘을 다해 섬긴 고귀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사명을 존귀와 영감으로 완수하여, 자신을 따르게 될 모든 자에게 등대가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예언자는 참으로 훌륭했지만, 그러한 그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시골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은 당시 미국의 국경 지역인 뉴욕 서부였습니다.

가족은 숲의 나무들을 베어 내고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으며,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근면함과 하늘의 축복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 이사야의 예언

요셉 스미스의 사업은 예언자 이사야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요셉의] 시작이 미약할 것이며 어렸을 때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

29장에서 그 주제에 관해 다루며, 이사야는 갑자기 멸망하나, 현대에 책을 통해 문자 그대로 무덤에서 말하는 듯한 한 민족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

우리는 이사야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으며 그 책이 현재 우리와 함께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바로 몰몬경입니다.

### 몰몬경

1823년 9월 22일, 뉴욕 주 팔마리아 근처에, 하나님의 한 천사가 당시 17세이던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몰몬경이] 감추어진 장소를 나타나 보여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는 여전히 배우지 못한 농장 일꾼이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현대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책은 금을 입힌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각 페이지는 일반

주석처럼 얇은 금속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페이지의 크기는 대략 18×20cm이며 모든 페이지가 금속 고리로 장정되어 페이지를 쉽게 넘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책의 두께는 15cm 가량이었고, 각 페이지 양쪽에는 작지만 아름답게 새겨진 고대 문자의 기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책은 수세기 동안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돌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돌상자들이 특히 멕시코와 중미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름다운 문양들이 새겨진 작은 돌상자로 보석들이 담겨 있었으며, 다른 것들은 음식을 보관할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고대에 돌상자 사용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이제 이 기록의 실제 번역에 대해 상고해 봅시다. 요셉 스미스는 우림과 돌뭍을 사용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번역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배우지 못했던 그로서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서기인 올리버 카우드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펜으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번역된 말들을 옮겨 적어(몇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몰몬경 전체를 기록했습니다.”<sup>1</sup>

또 다른 보조 서기인 마틴 해리스도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서기로 그를 도왔던 예언자의 사랑하는 아내인 엠마 스미스도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자신이 영감을 받지 않고서는 원고의 기록을 받아 쓰게 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만족합니다. 이는 [제가] 요셉의 서기로 일했을 때, [그는] 매 시간 저에게 받아 쓰게 했습니다. 그가 식사 후어나 중단했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그는 원고를 보거나 원고의 어느 부분을 자기에게 읽어 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멈추었던 곳에서 즉시 시작하곤 했습니다. ...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은 솔직히 불가능했습니다.”<sup>2</sup>



몰몬경은 문학적, 종교적인 대작으로 어떠한 시골 농장 소년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탁월한 것입니다. 몰몬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현대의 계시입니다. 몰몬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번역의 전 과정이 하나의 기적입니다. 몰몬경은 이사가야 말했던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이사야 29:14)

몰몬경의 첫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하나의 계시이며, 영감 받은 번역이며, 인간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업적입니다. 첫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것이 진실합니다. ...

요셉 스미스의 미약한 시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계시인, 이 새로운 경전이 세상의 구세주의 신성을 증거하는 두 번째 충실한 증거로 나왔습니다. ■

1977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부표제 추가, 철자와 부호가 현대화됨.

주

1. Reuben Miller Journals, 1848~1849, Family and Church History Department Archive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1848년 10월 21일.
2.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1879년 10월 1일, 290쪽.

**모** 로나이 천사가  
몰몬경의  
금판이 숨겨진  
장소를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해 주었고, 후에 그가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그  
금판을 번역했다.



# 질문의 응답

“저는 매력이 없습니다. 제발 제게 매력이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 리아호나의 대답

**여**러분은 거울을 들여다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자신의 외모에 대해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들이거나 딸입니다.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누나, 오빠, 언니, 여동생, 또는 남동생입니다. 여러분은 사촌, 친구, 와드 또는 지부 회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아깁니다.

자신의 가장 뛰어난 특성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은 친절한 사람이거나 근면한 사람, 또는 좋은 친구일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졌든, 여러분은 중요한 달란트(재능)를 가졌으며, 독특한 개성과 자신의 인생을 위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자신이 누구이며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어 보십시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 계명을 지키고 기도와 경전 공부를 한다면 자신이 고귀한 태생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가장 훌륭한 자신이 되는 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은 기본적인 신체적 특성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웃이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방식은 모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소와 유쾌한 성격, 얼굴에 비치는 내면의 빛 등이 여러분의 모습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어떠한 사람도 외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거나, 필수적인 의식을 받거나, 끝까지 충실하게 사는 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아들과 딸입니다.

## 내면을 들여다봄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잘생기거나 똑똑하거나 유명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낙담하거나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잘생기지 못했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유명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교만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건전한 비교는 현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 즉 최선의 자신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신체적 외모 중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재능을 나누고, 인격을 고양시키고, 깔끔하고 청결하게 되고, 영성을 높이는 것과 같은 것들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 노력한다면 자신에 대해 보다 좋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모델 사진 촬영: 매튜 라이어

### 위를 쳐다보십시오

구세주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앨마서 7:11~12 참조) 그분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이 삶을 의도된 목적대로, 다시 말해서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배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브라함서 3:25 참조)

순수하고, 친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포함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발한다면 평안과 행복이 찾아올 것이며, 자신의 어려움이 괴로움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 독자들의 대답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때로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에게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보다 좋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린넷 드로우인, 18세, 앨버타 에드몬턴 리버벤드

### 스테이크 화이트코트 지부



우리가 이생에서는 완전한 몸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인 가족과

친구들과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말린 시 로테르트, 19세, 필리핀 로페즈 스테이크 로페즈 제1와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창세기 1:26~27 참조)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은 못생긴 사람이나 아름다운 사람이나 어느 누구에게든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순결한 마음과 친절한 감정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외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앨마 아이리스 산체스 에체베리아, 17세,  
온두라스 코마야과 스테이크 시과테페케 와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많은 훌륭한 자질을 가진 것을 아시지만, 여러분이 그것들을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십대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올바른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엿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니켈 버드, 16세, 리처드 워싱턴 스테이크 쇼어라인 와드

우리의 신체적인 외모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막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행복은 외모에서 찾지 못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움으로써 행복을 찾기를 그분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알 때 찾아옵니다.

모로나이 아브라함 지메네스 페레스, 20세,  
멕시코 멕시코시티 서 선교부

저는 제 자신이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가 내면에 간직한 것들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성전으로 저를 데려간 훌륭한 남자와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한다면,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찾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클라우디아 알론소, 20세,  
텍사스 샌 안토니오 동 스테이크 우드레이크 와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귀중한 보석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은사들로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여러분이 가진 가치관과 내면의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 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보다 덜 귀하게  
여김을 받거나 덜  
소중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며 우리의  
불안, 근심,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재능과 외모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경주가 죄와의  
경주이지, 다른  
사람들과의 경주가  
아니라고 외치시며  
모든 경주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십이사도 정원희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The Other Prodigal", Liahona, July 2002, 72쪽; Ensign, 2002년 5월호, 64쪽.

렉스 다니엘 디 롬보이, 16세,  
필리핀 우르단테타 스테이크 비날로난 제2와드



거의 대부분의 소녀가 자신에게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제가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아름다움과 독특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영과 내면의 평화를 갖는 것입니다.

스베틀라나 코피토바, 18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방부 콜피노 지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영이라고 믿습니다. 육체적인 매력이 없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완전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안젤레스 나탈리아 티세라, 15세,  
아르헨티나 로케 사엔스 페냐 지방부 로케 사엔스 페냐 지부

우리 가족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참된 아름다움이란 사람에게 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밝음을 선사할 겸손과 인내와 사랑을 키웁시다.

메리아니 존스턴, 15세,  
파피테 타히티 스테이크 파우타우아 와드

리아호나와 독자의 대답은 도움과 올바른 시각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의 교리를 발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독자들에게: 아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성명, 생년월일, 와드, 스테이크(또는 지부 및 지방부) 그리고 사진과 함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1/05

50 East North Temple Street, Floor 24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cur-liahona-imag@ldschurch.org

2005년 1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 질문

“제 친구가 요셉 스미스 이야기를 믿지 않아도 된다면 교회에 들어오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제가 친구에게 대답해야 할까요?” ■

# 성탄절 전날의 아침 식사

토니 헤이크스

18년 전의 성탄절 무렵, 당시 젊은 어머니였던 나는 이상적인 성탄절이라고 여겼던, 텔레비전이나 잡지 상에서의, 아름다운 장식과, 멋진 음식과 행복한 어린이들의 미소가 가득한 성탄절과는 너무 동떨어진 우리 가족의 현실을 고통스런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선물 포장을 마치고 집안을 치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시에 나는 어린 세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에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 아이들 중 하나가 몹시 보냈고, 그날 밤 울적한 느낌이 내 마음을 내리눌렀다. 나는 기운을 잃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아이를 유아용 높은 의자에 앉혀, 밥을 먹이며 안정시키려고 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빠르게 다가왔지만, 쫓불을 켜 탁자도, 따뜻한 음식도, 난로에는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때 바겐세일 쇼핑을 하러 갔던 남편이 부엌에 들어서며 조리대에 팬케이크 가루와 얼음 섞인 오렌지 주스, 소시지 팩

등을 내려놓았다. 남편은 나름대로 내가 몹시 힘겨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남편이 성탄절 전날 저녁 식사를 차릴 각오를 하고 있었다.

성탄절 전날 우리 가족은 아침을 먹었다. 그 맛이 어땠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사랑 받고 이해 받는 것이 어떤지는 기억할 수 있다. 그 후로 우리는 언제나 성탄절 전날 특별한 아침 식사를 했다. 아이들은 아마도 그 중요성을

**나**는 몹시 지쳐 있었다.

그때 남편이 팬케이크 가루와 얼음 섞인 오렌지 주스, 소시지 팩 등을 들고서 부엌에 들어섰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아침이 우리의 전통이 되었고 그 전통은 꾸준히 지켜져 왔다.

아주 오래 전에 나를 위해 남편이 성탄절 전날에 해준 작은 봉사의 행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작고 사려 깊은 행위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사심없는 봉사를 통해, 영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이다. 장식품들이 무대를 꾸밀지는 모르지만, 성탄절의 본질은 사랑과 봉사에 있는 것이다. ■

토니 헤이크스는 유타 샌디 동 스테이크 윌로우 캐년 제8와드의 회원이다.





# 애팔래치아 계곡의 크리스마스 트리

로리 흄킨스

**19** 77년의 성탄절은 내게 행복한 성탄절이 아니었다. 방문할 만큼 가까이 사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고, 돈도 거의 바닥이 났고, 내 영을 고무시킬 예쁜 장식도 없었다. 그나마 있는 것이라곤 색지와 팝콘 체인으로 감은 못생기고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만이 달랑 있을 뿐이었다. 어린아이들의 희망찬 눈망울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크리스마스 트리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 것이다.

남편은 직장에 가려면 45분간 차를 몰고 가야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의 유일한 교통 수단인 차는 남편이 갖고 가야 했다.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상당히 동떨어진 곳에서 매일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 박혀 있어야 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은 꼬불꼬불한 산길을 차를 몰고 20분이나 나가야 있었다. 우리가 다니던 작은 지부의 예배당과 대부분의 회원들은 거의 한 시간 가량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젊은이 다운 한때의 이상주의와

**그** 다지 큰 사고 없이 크리스마스

스 트리를 들고서 아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루스의 통나무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다.

모험심 때문에 이 외딴 애팔래치아 계곡으로 이사 왔다. 남편은 버지니아의 싘 땅에 대해 들었고, 내가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문명 세계와는 동떨어진” 그 곳으로 이사를 했다. 남편은 산기슭에 작은 집을 지었고, 근처 샘에서 물을 끌어다 사용했다.

이웃이 있긴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가장 가까운 집은 1801년에 지어진 통나무 집으로, 우리 지부에 다니는 젊은 부부인

앤더슨(가명 사용) 가족이 세 들어 살고 있었다. 그들도 우리처럼 가난했다. 가장인 도널드는 일주일에 6일, 때로는 7일간 일했다. 도널드와 루스는 우리 부부처럼 세 자녀를 두고 있었고, 루스는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렸다.

우리 집에서 루스의 집까지 가는 길은 깊게 패인 진창길을 걸어가는, 상당히 위험한 등산길이었다. 어느 편에서나, 아이를 안고 나머지 두 아이를 데리고 방문한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나마 이따금 방문을 하던 중



하루는 루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는 새벽이면 집을 나서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루스는 단지 나무를 구하러 시골 주변을 돌아다닐 수는 없었다.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밤에 나는 앤더슨 가족을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찾아야겠다는 갑작스런 충동이 일었다.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 그들을 위해

나무를 찾아야만 했다.

그날 밤 나는 종이 사슬과 팝콘을 주렁주렁 펜 줄,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놓을 반짝이는 노란 별을 만들었다. 아침에는 산기슭으로 올라가 작은 나무를 찾아내었다. 그 나무를 잘라 내어 반침으로 쓸 낡은 깡통을 찾아낸 후 흙을 담았다. 그 결과 아름답다기 보다는 웃긴 성탄절 트리가 만들어졌다.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그나마 기분이 좋을 것이다.

나는 루스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해도 좋으냐고 물은 후, 아이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갔다. 그다지 큰 사고 없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서 아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루스의 통나무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나온 루스는 내가 만든 웃긴 크리스마스 트리를

## 먼저 카드를 열어 보렴

사무엘 오소리오 멘도사

**어**렸을 때, 우리는 대체로 성탄절에 온통 무엇을 받게 될까 하는

생각만 하곤 합니다.

1991년에 저는 어떠한 선물보다도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

다. 어머니와 여러 다른 친척들이 세계 보여 준 모범으로 인해 저는 그 전 해에 선교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열여덟 번째 생일을 맞은 후에 대학을 휴학한 저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저를 지원할 가족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돈을 저축하려고 1년간 소방서에서 일했습니다.

12월 1일이면 주님을 섬기려 떠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마침내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12월의 처음 두 주가 그냥 지나자, 저는 어떠한 성탄절 카드보다도 그 응답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편지도 오지 않았습니

다. 저는 아마도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제 합당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머리에는 온갖 비관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탄절 전날 아침 일찍 저는 동생과 함께 집 근처의 한 클럽에서 핸드볼 게임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

다. 집에 돌아왔을 때, 선물용 포장지에 싸인 아주 큰 카드를 비롯한 여러 성탄절 카드들이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카드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



당장 열어 보고 싶었지만, 어머니께서 가족들이 모두 모일 저녁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우리는 선물을 열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선물을 열어 보려고 했지만, 아버지께서 카드를 먼저 열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카드를 열자 그 안에서 편지가 나왔고 발신인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였습니다. 수신인은 사무엘 오소리오 장로로 되어 있었습니

다. 그 순간 저는 온통 카메라 플래시 불빛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놀란 얼굴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저는 성탄절 전날 밤에 부름을 받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성탄절 선물이었습니다. 선교 사업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경험이었으며, 주님으로부터 온 저의 부름은 성탄절에 받은 가장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

사무엘 오소리오 멘도사는 멕시코 포사리카 팔마스 스테이크 팔마스 워드의 회원이다.



보곤 눈물을 터뜨렸다. 난 그 생각이 결국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집안으로 들어갔다.

루스는 안정을 되찾은 후, 왜 울음을 터뜨렸는지 설명했다. 도널드가 아주 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다고 한다.

찬장이 거의 텅 비어, 가족 모두가 차를 타고 멀리 떨어진 가게로 갔다. 시간이 좀 지나자 세 살 난 마이클이 이렇게 말했다. “아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도널드는 마이클에게 기도하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어린이의 순수한 신앙으로 마이클은 하나님 아버지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했다. “아멘” 하고 말한 후, 도널드와 루스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린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어 고민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따라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나타난 우리가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이었다. 앤더슨 부부의 아이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그 웃기게 생긴 크리스마스 트리를 특별한 곳에 놓았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더 사랑 받은 나무는 없었을 것이다.

성탄절의 기적은 하늘로 향한 어린 소년의 마음에서 나온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도 일어났다. 그 기적은 또한 주는 행위를 통해 내가 발견한 치유의 힘이었다.

앤더슨 가족을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찾아 보겠다는 생각이 든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는 성탄절의 영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오셔서 가르치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봉사할 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3)는 것을 알게 된다. ■

로리 홉킨스는 콜로라도 러브랜드 스테이크 빅 톱슨 와드의 회원이다.

## 도심의 선교사들

레미 반 데르 푸트

**제**가 봉사하던 프랑스의 선교부에서 맞이한 첫번째 성탄절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한 훌륭한 회원 가족의 초대를 받아 성탄절을 함께 보내며, 편안하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성탄절은 제 기억에서 아주 특별한 것으로 언제나 소중히 간직될 것입니다.

제가 봉사하던 작은 프랑스 마을에는 성탄절의 흥겨움이 가득했습니다. 가게마다 성탄절 음악이 흘러나왔고, 광고물이 넘쳐 났고, 우편물은 성탄절 카드로 가득 찼습니다.

성탄절 며칠 전에 우리 지역의 선교사들은 버스와 전철역과 쇼핑몰 등지로 다니며 캐럴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캐럴을 부르고, 소책자를 나누어 주고, 성탄절 포장지로 포장한 몰몬경을 나누어 주며 프랑스 형제 자매들과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아주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기를 바랐습니다. 그 이전 해처럼 우리는 성탄절 전날 밤을 회원 가정에서 보내기로 계획했습니다. 제 동반자와 저는 초대를 받아 집에서 만든 훌륭한 성탄절 만찬을 먹게 되기를 고대했습니다.

12월 24일, 우리는 아침 나절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돌아왔을 때, 그날 저녁 식사를 초대할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집안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족의 갑작스런 상으로 집에 갈 수 없지만, 전화상으로 최대한 그들을 위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장 외로운 성탄절 전날밤을 보내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파트를 함께 사용하던 다른 장로들은 다른 곳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다시 일하러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들이 가득한 따뜻한 집마다 불 밝힌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제 마음은 네덜란드에 있는 가족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마 함께 모여, 성탄절 캐럴을 부르며, 그리스도 탄생의 이야기를 읽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아버지께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촛불을 켜는 동안 가족들은 성탄절 음악을 들을 것입니다. 갑자기 저는 짙은 향수에 빠졌습니다.

아파트에 돌아와 책상에 앉자, 우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의 성탄절 음악 테이프를 틀어 놓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며 배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함께 봉사한 사람들은 이유야 어쨌든 언제나 제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와그너 장로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는 잠시 후 책상에서 일어나 자신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하면서 “몰몬경을 가지고 전철역으로 가서, 성탄절 전날 밤을



## 저는 창가에 혼자 앉은 사람에게

로 다가가, 서로 자신의 가족과 성탄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외롭게 보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불쌍한 처지를 비관하며 그냥 자리에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나와 전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역에 다가갈수록, 이것이 그다지 나쁜 생각이 아니며 아마도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탄 전철은 거의 텅 비어 있었고, 약간의 사람들만이 퍽퍽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혼자 앉아 있던 사람에게 다가가 저를 소개하고 옆에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좋다고 했고, 우리는 서로 자신의 가족과 성탄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망명자이며 자신의 나라와 가족을 떠나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몹시 그립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같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족도 멀리 떨어져 있기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며, 성탄절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철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고 간증하면서 이전과 같은 불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동반자와 제가 마침내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속에는 놀라운 감사의 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에

대해 토론하면서, 저는 동반자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탄절의 영을 느꼈으며, 제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저와 온 세상을 위해 구세주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제 인생에 복음을 알게 된 것과 그날 밤 저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라 느꼈습니다.

그 성탄절 전날 밤에 비로소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에 그날의 성탄절을 저는 언제나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저의 소중한 간증을 나누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

레미 반 데르 푸트는 워싱턴 커틀랜드 스테이크 커틀랜드 제2와드의 회원이다.





**성취된 예언**

지상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아호나*는 그러한 성취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제논 카브레라 시,  
볼리비아 라라과 지방부  
라라과 지부

**회원들의 도움**

*리아호나*가 오면, 저는 그 책을 하루에 다 읽습니다. 특히 다른 회원들의 영적인 경험들에 대해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경험은 저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루스 카발레로,  
파라과이 페드로 주앙 카발레로 지방부  
페드로 주앙 카발레로 제3지부

**복음 고전을 읽고 받은 축복**

*리아호나*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은 안정됩니다. 저는 복음 고전란을 좋아합니다. 예언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에 감동받고 제 삶에 큰 축복이 온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리아오 알린,  
타이완 후와 리엔 지방부  
타이퉁 지부

**선교 잡지**

*리아호나*는 제가 선교사로 봉사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기사는 제가 회원들과 구도자와 동반자에게 훌륭한 조언을 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잡지에서 기사를 뽑아 친구들에게 편지로 보냄으로써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라는 우리 지도자들의 권고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오다스 장로,  
멕시코 레온 선교부

***리아호나*는 보물입니다**

저는 언제나 *리아호나*를 기쁜 마음으로 읽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간증을 나누는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리아호나*는 보물입니다.

올가 히리프코,  
우크라이나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지방부,  
자포로제 첸트랄니 지부

**단정함에 관한 제언**

오늘날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평상복, 운동복, 또는 정장이 단정합니까? 가족이나 와드 또는 스테이크(지부 또는 지방부)에서 단정함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Modesty,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전자 우편 [cur-liahona-imag@ldschurch.org](mailto:cur-liahona-imag@ldschurch.org).

**리아호나를 선물로 보내십시오**

직장에서 종종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하는 친구, 가정 복음 교육 대상 가족들 중 활동이 저조한 회원, 강화시켜야 할 어린이나 가족 회원 또는 선교부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 귀한 선교사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모두 *리아호나* 구독권을 선물로 보낼 가장 좋은 대상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 다음 언어로 된 *리아호나*를 신청하여 받아 보거나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마셜 제도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불어, 사모아어, 세부아노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신할리스어, 아르메니아어(동), 아이슬란드어, 아이티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구독이나 신청에 관해 알고 싶으시면 와드 또는 지부 지도자나 지역 배부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대관장단 성탄절 메시지



## 일년 중 가장 아름다운 절기

**كن**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성탄절 인사를 드립니다. 일년 중 가장 즐거운 이 절기에 구세주의 탄생에 대해 생각하면서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구세주의 탄생과 사명으로 인해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구세주의 속죄를 통해서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여러분 개개인과 가족이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이 절기에 구세주의 사랑을 느끼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관장단

그림: 조셉 브릭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복사 금지









# 예수님에게는 의로운 지상의 부모가 계셨어요

“무엇이라도 사람들에게 선행을 가르치는 것은 나로 인함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선이 비롯되지 아니함이라. ...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세상의 진리라.”(이더서 4:12)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원리들을 가르치도록 부모와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족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그분을 돌보고 가르칠 의로운 부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천사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갖게 될 것이며 그를 예수라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누가복음 1:28) 마리아는 명령 받은 대로 하겠다고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누가복음 1:38)

천사는 또한 요셉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겠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는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마태복음 1:20~21 참조)

마리아와 요셉은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령 받은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모범과 마리아와 요셉의 모범을 따를 때 우리 가족은 축복 받을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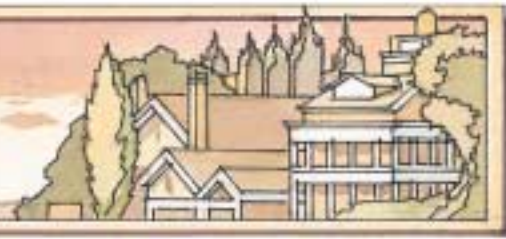
## 가정의 밤 활동 및 제언

1. 친4쪽에 있는 그림에 색칠한다. 예수님에게도 지상의 가족이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방에 그 그림을 걸어 둔다.
2. 가정의 밤 활동을 위하여, 가족에게 줄 친4쪽의 그림을 복사한다. 그림에 색칠을 하고 두루마리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각각의 그림을 리본으로 묶어 올해 여러분의 가족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준다.(예를 들면, 이웃, 여러분의 조부모님, 감독 또는 지부장님)
3. 가정의 밤 공과나 초등회 말씀을 위해,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요셉에 대한 내용을 읽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 그리고 엘마서 7장 10절에 있는 마리아에 대한 내용을 읽는다.(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가족이 되기 위해 발전시키고 싶은 성품을 고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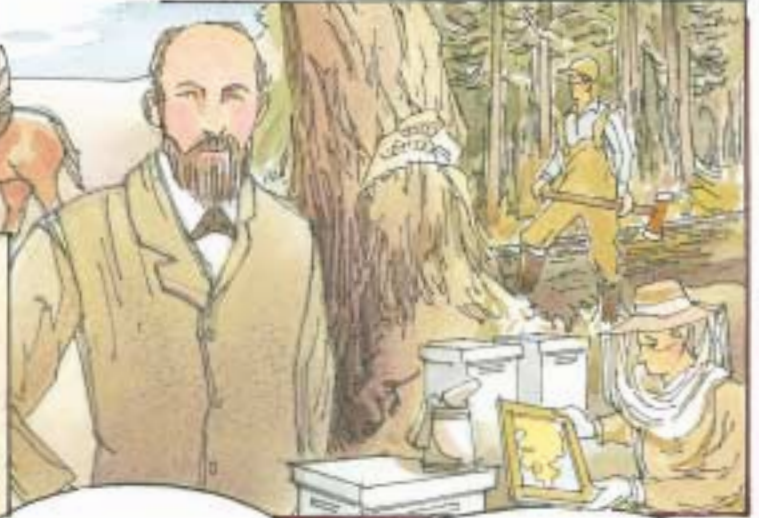
주: 만약 잡지에 있는 쪽들을 떼어 내고 싶지 않다면, 복사를 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인쇄해서 이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영어로 된 자료를 찾으려면, “Gospel Library”를 클릭하고, 다른 언어로 된 자료를 찾으려면, 세계 지도를 클릭한다.



##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생애에서 자비로운 사업가



히버 제이 그랜트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했다. 그가 시도한 사업은 목재, 양모, 식초 제조, 제당, 보험, 목장, 신문 출판, 비누 제조, 양봉 등이었다.



그의 가장 큰 사업적 재능은 은행 업무였다. 그는 은행업에 대해 배우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으며, 젊은 나이에 시작하여 결국 은행장이 되었다.

히버, 어떻게 수백 달러를 친구들에게 주는 책값으로 쓸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취미 생활에 쓰는 돈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책을 나누어 줍니다. 내 취미는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도 행복하게 해주지요.

히버는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위치에 있게 되었다.



히버는 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한 가족에게 농장 부지를 사 주었고, 친척 한 명에게는 집을 사 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환자들을 위해 병원비도 지불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히버가 한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빠, 보세요. 두 아들을 선교사로 보낸 한 미망인에 대한 신문 기사예요. 그 분은 돈 때문에 무척 힘든 것 같아요.

그 분 이름을 알려 다오, 내가 연결해 볼테니. 선교사로 나간 두 아들을 도와야지.



어느 날 한 가난한 예술가가 그림을 팔러 왔습니다. 히버는 벽에 새 그림을 걸 공간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 아름다운 그림 값에 50불을 더 드립니다. 얼마 전에 당신에게서 그림을 샀던 사람입니다. 너무 싼값으로 사게 되어 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이 그림을 걸어 놓을 공간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파십시오. 히버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도 그는 한 미망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의 사랑과 관대함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에머슨 로이 웨스트, *Profiles of the Presidents*(1972), 209~210, 213쪽; 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 히버 제이 그랜트: *Highlights in the Life of a Great Leader*(1951), 203~205, 207, 216쪽.

당신이 주택 대출로 얼마나 빚지고 있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즉시 절반을 갚아 드리겠습니다.





## 템플 스퀘어의 성탄절

김벌리 웹  
교회 잡지

**지** 상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초리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오늘날 전세계의 웅장한 성전들은 모두  
그분에게 헌납됩니다.

이 성탄 절기를 맞아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템플 스퀘어는  
그분의 탄생을 경축하면서 단장되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 친8~9쪽을 잘라 낸 다음  
두꺼운 종이에 붙인다. 친15쪽에 있는  
그림은 잘라 내어 봉투에 넣는다. 12월  
1일에 시작하여 적혀 있는 활동을 읽고  
그날 안에 그 활동을 완수한다. 그런 다음  
숫자가 적힌 공간에 일치하는 그림을 찾아  
제자리에 풀로 붙인다.

- 1 성탄절 카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다.
- 2 은밀하게 친절을 베푼다.
- 3 가족의 고마움을 기억한다.
- 4 당번이 아닐 때도 집안일을 돕는다.
- 5 성찬식 동안 예수님에 대해 생각한다.
- 6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들이 살았던 시절의 성탄절은 어땠는가?
- 7 가족과 함께 성탄절 노래를 부른다.
- 8 가족 개개인을 칭찬한다.
- 9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작은 선물을 준다.
- 10 일지에 가족의 성탄절 전통에 대한 글을 적거나 그림을 그린다.
- 11 이웃이나 선교사를 위해 성탄절





공예품을 만든다.

- 12 가족과 함께 이사가 9장 6절과 모사이아서 3장 1~8절을 읽는다.
- 13 가족과 함께 캐럴을 부르러 간다.
- 14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진 그림을 그린다.
- 15 간증을 적어 일지에 보관한다.
- 16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주어진 표적을 기억한다.
- 17 부모님의 어릴 적 성탄절 추억을 들려 달라고 부탁한다.
- 18 외로운 사람을 방문한다.
- 19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그림을 그린다.
- 20 가족이 좋아하는 성탄절 다과 만드는 것을 돕는다.
- 21 언젠가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 여러분이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말한다.
- 22 구세주를 떠올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말한다.
- 23 니파이삼서 1장 1~23절을 가족과 함께 읽는다.
- 24 누기복음 2장 1~20절을 가족과 함께 읽는다.



주: 만약 잠지에 있는 쪽들을 떼어 내고 싶지 않다면, 복사를 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인쇄해서 이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영어 자료를 찾으려면, "Gospel Library"를 클릭하고, 다른 언어 자료를 찾으려면, 세계 지도를 클릭한다.

# 일년 내내 주는 성탄절 선물

“무엇이라도 사람들에게 선행을 가르치는 것은 나로 인함이니  
…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세상의 진리라.”(이더서 4:12)

## 샬러 이 월슨



2천여 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여행했습니다. 요셉은 여관을 찾아다녔지만 묵을 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구간을 발견하고 그 곳에서 해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번째 성탄절이었습니다. 그 곳에는 함께 모인 큰 가족이 없었습니다. 장식도 없었으며 빛나게 포장된 선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축가와 노래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들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큰 합창에 참여했습니다.(누가복음 2:13~14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죄와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따르도록 완전한 모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여 주셨으며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과 봉사의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탄 절기만 아니라 일 년 내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 선물 장식

친11쪽의 선물들을 실선을 따라 잘라 낸다. 점선대로 접은 다음, 윗 뚜껑을 풀로 붙인다. 각 선물 위쪽에 구멍을 뚫고 끈을 단다. 잘 볼 수 있는 곳에 선물들을 걸어 둔다. 며칠마다 “선물”을 열고 그 안의 활동을 한다. 일 년 내내 이 선물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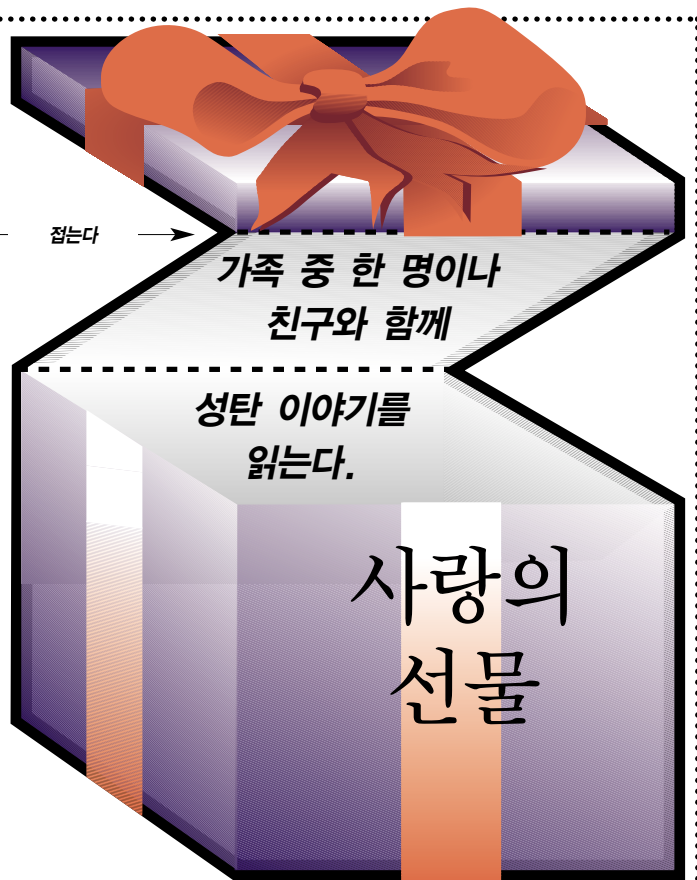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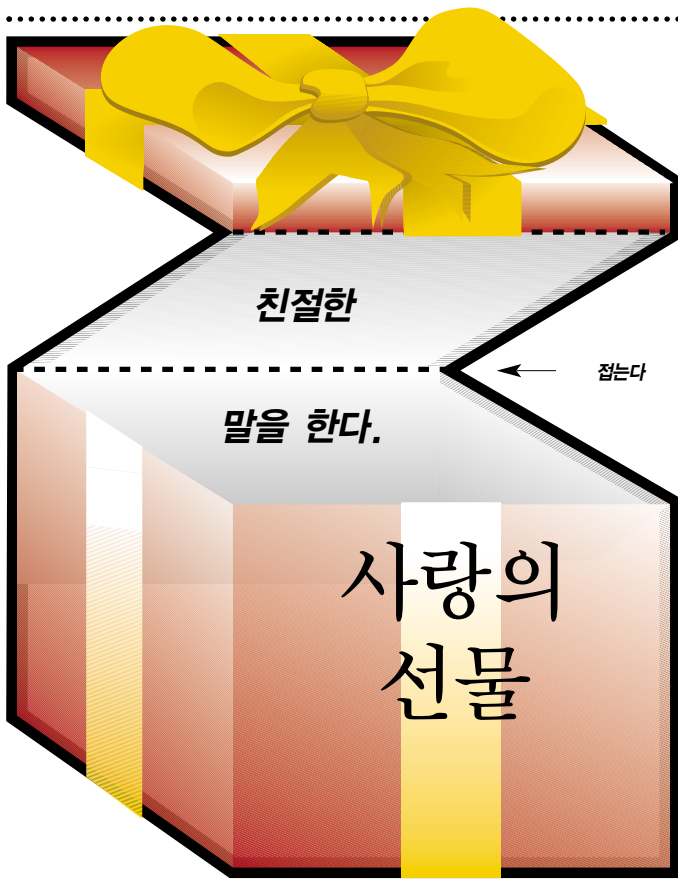
준다는 것을 명심한다.

##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여 준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그들이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다. 다같이 누가복음 22장 19절을 읽는다. 니파이 백성들을 방문하신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여 준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니파이 백성들에게 성찬을 들도록 가르치셨다. 다같이 니파이삼서 18장 6절에서 7절, 11절을 읽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성찬을 들면서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라고 가르치셨다. 오늘날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하는 사진을 보여 준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똑같은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성찬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의 영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할 것임을 말해 준다. 모로니서 4장 3절 및 5장 2절에 있는 성찬 기도를 읽는다. 우리가 성찬을 들면서 속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성찬을 축하하지 않는 것이라고 어린이들에게 상기시킨다.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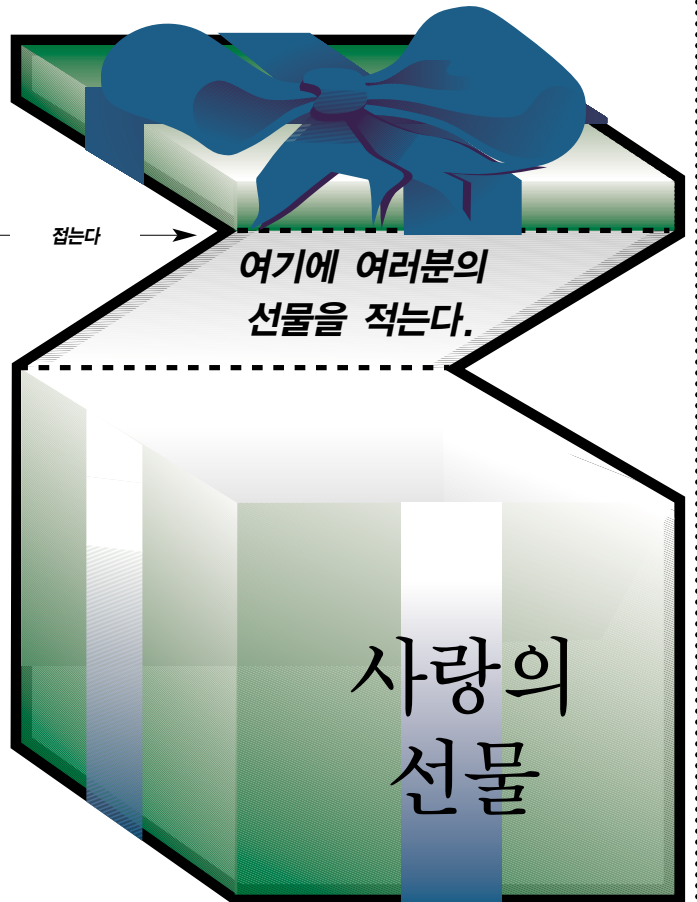
2. 위의 제언에 제시된 그림을 칠판에 붙이고 각각에 대해 토론한다. 그림 위에 “일요일”이라고 적는다.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토론한다. 일요일에 우리는 교회에서 성찬식 중에, 그리고 초등학교 노래를 부를 때 그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여섯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주일 중 하루를 준다. (일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및 토요일) 한 주 내내 구세주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거나 그림을 그리게 한다. (예: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옳은 일을 행하기, 계명을 지키기, 친절하기, 감사하기) 각 그룹에게 발표할 기회를 준다. “나는 -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한다. 한 어린이에게 콩주머니를 던져 준다. 그 어린이가 그 문장을 완수하면 다른 어린이에게 콩주머니를 던지게 하여 반복한다. 어린이들에게 한 주 내내 구세주를 기억할 것을 상기시킨다. ●





← 접는다 →

← 접는다 →



← 접는다 →

← 접는다 →

주: 만약 잡지에 있는 쪽들을 떼어 내고 싶지 않다면, 복사를 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인쇄해서 이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영어 자료를 찾으려면, "Gospel Library"를 클릭하고, 다른 언어 자료를 찾으려면, 세계 지도를 클릭한다.







“주님은 주의 권세로 의를 지키시나니”(니파이일서 22:17)

# 성탄절 저녁 식사에 필요한 양배추

트리사 마틴

실화

“애니, 내일 성탄절 저녁 식사 준비에 양배추가 필요해. 올슨네 가게에 가서 이 감자들을 주고 양배추 하나를 얻어 오렴. 지금 빨리, 금방 어두워지잖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열한 살의 애니가 한숨을 쉬며 뜨개질을 중단하고 감자 부대자루를 집어 들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성탄절 저녁 식사에 양배추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고, 애니도 그것이 맛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난로 옆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건널드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러길 바라면서 애니가 말했습니다.

“아니, 건널드는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아버지를 도와야 해.”

애니는 양가죽 코트를 입고 바깥의 싸늘한 공기 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길 아래로 종종걸음치며 달려 내려가는 애니의 발 밑으로 저벅저벅 눈 밟히는 소리가 들렸고 매서운 바람에 애니의 땅은 금발이 휘날렸습니다.

몇 분 뒤, 올슨네 오두막에 도착한 애니는 나무 문을 두드렸습니다. 훔긋 엿보던 올슨 부인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애니, 이 때서운 바람 속에서 뭘 하고 있지? 뺨이 딸기처럼 빨갱구나. 들어와서 몸 좀 녹이렴.”

딱딱 소리나는 불 옆에 서자 애니의 손가락, 발가락이 따끔거리며 아파왔습니다. “어머니가 이 감자들을 양배추와 바꿔 오라고 하셨어요.” 애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야야, 어찌지, 양배추가 하나도 없구나. 한 개 남았었는데 어제 먹어 버렸어.” 올슨 부인이 난로에 걸려 있는 커다란 검은 주전자를 움직였습니다. “오트밀 죽 좀 먹어

볼래?”

“아뇨, 감사합니다.” 애니가 대답하며 “가 봐야겠어요, 어디 가면 양배추를 구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피터스네에 가면 하나쯤 있을지 몰라. 올해 풍작이었거든. 하지만 거기 가려면 서둘러야 해. 폭풍우가 올 것 같애.”

“올슨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애니가 서둘러 밖으로 달려나가며 말했습니다. 감자 자루를 팔 밑으로 치켜들고 호주머니에 양손을 깊이 집어 넣고 애니는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얼음같이 찬 바람이 애니의 얼굴을 때렸고 검은 떡구름 위로 우르르 소리가 났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애니는 피터스네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피터스 부인이 애니의 감자와 바깥 여분의 양배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별의 손을 흔들면서 애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애니 주위를 조그마한 눈송이들이 펄펄 날리며 거위 깃털처럼 하얗게 길을 덮었습니다.

애니는 가족이 사는 따뜻한 오두막을 생각했습니다. 맛있는 루테피스크(말린 대구)와 감자 요리 냄새가 나는 듯했습니다. 어찌면 어머니는 리스크렘(쌀 푸딩)도 만들면서 그 속에 아몬드를 숨겨 놓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마도 애니는 숨겨 놓은 아몬드를 찾아내는 행운아가 될 것입니다.

눈이 더 빠르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눈발이 애니의 눈썹을 덮고 길을 물어버렸습니다. 애니는 앞에 보이는 풍경을 응시하며 길을 찾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게 우리 집인가?” 애니는 펄펄 날리는 눈 속에서 한 어두운 물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나무 덩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애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산들이 왜 거인들처럼 보이는 거지?” 애니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자신이 마치 꿈속에 있는 듯 느꼈습니다.

거대하게 쌓인 눈더미가 따뜻하고 하얀 깃털 침대처럼 보이며 그만 멈추고 잠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애니는 집을 생각하며 저항했습니다. 애니는 양배추를 단단히 움켜쥐고 마치 나무로 만든 듯 딱딱하게 느껴지는 다리로 티벅티벅 걸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애니의 지친 다리는 주저앉았고 애니는 부드러운 담요 같은 눈 속에 누워버렸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애니의 아버지가 펄펄 날리는 하얀 눈 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애니는 도대체 어디에 있지? 아버지는 두꺼운 코트로 몸을 감싸고 손전등을 움켜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서둘러 길을 내려가며 바람 속에서 “애니야! 애니야.” 하고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거대한 가문비 나무 옆에 있는 이상한 더미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손전등을 흔들면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희미한 빛 속으로 눈 속에 한 창백한 물체가 보였습니다. 애니인가? 아버지가 달려가 애니를 붙잡고 자신의 털 코트로 감쌌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애를 살려 주십시오” 아버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애니의 입술이 움직이면서 희미하게 “아빠” 하는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니야, 살아났구나, 기적이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 네 생명을 지켜주셨구나.”라고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 ※ ※ ※

**9**년 후에 애니는 소렌 헨슨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여덟 자녀를 두었습니다. 소렌이 죽자 애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정육점에 톱밥을 팔았습니다. 매일 그녀는 조그만 달구지에 노란 조랑말을 매어 오솔로 근처로 톱밥 덩이를 날랐습니다.

어느 날 노천 시장 근처에 있던 애니는 이상한 소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청년이 채소 시장 근처에 모인 군중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애니는 호기심으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한 예언자와 물몬경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은 애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857년 3월 2일에 애니는 노르웨이의 첫번째 개종자 중 한 사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애니는 큰 영향을 미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들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제재소 주인인 굴브란슨 씨도 애니가 복음을 가르친 후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81세로 노르웨이에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간증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생활하고 번성하며 ... 항상 그분의 뜻대로 행하도록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1838~1918), 대회 보고, 1905년 10월, 5~6쪽.

손자손녀들 중 일부는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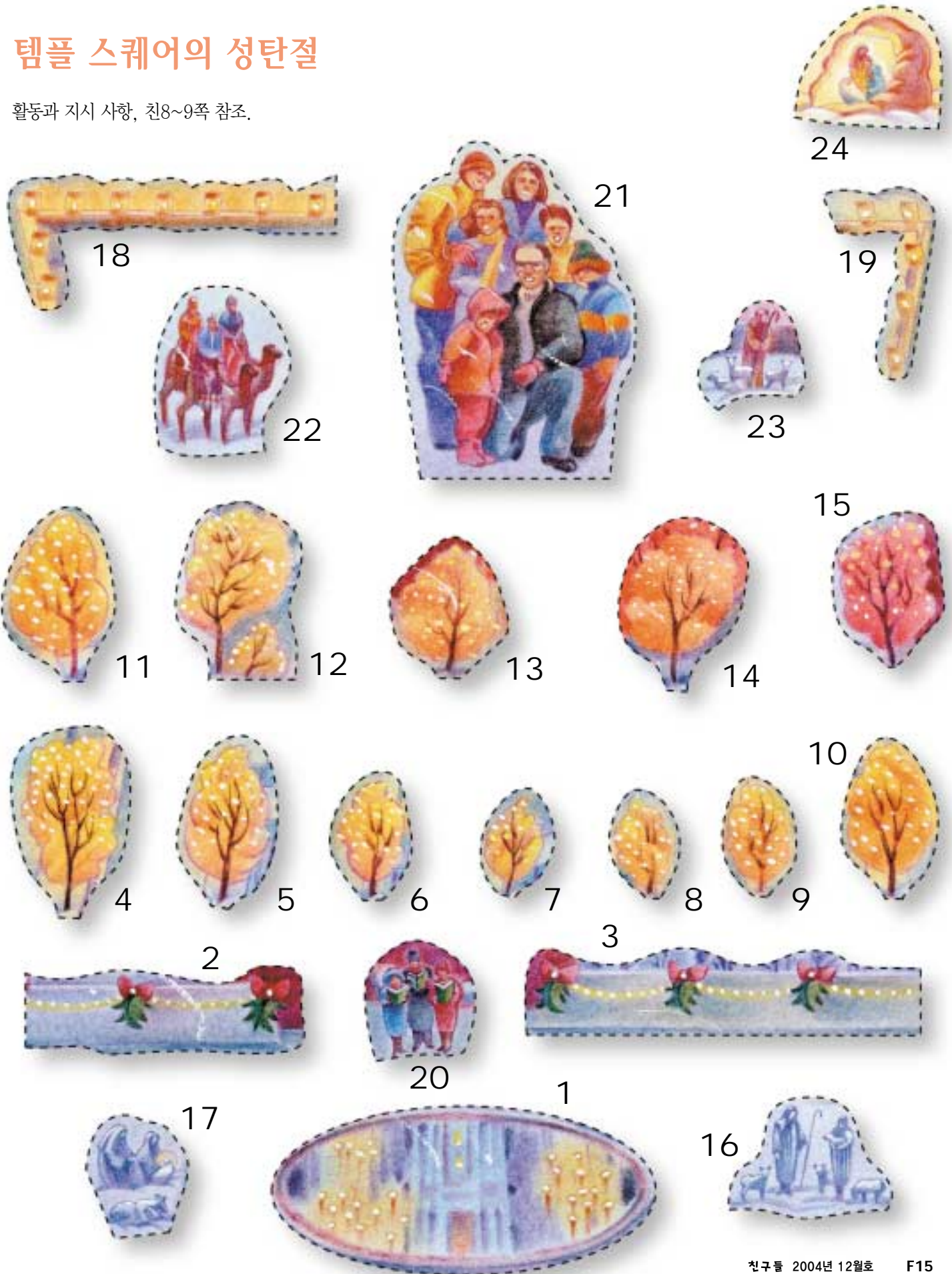
오늘날 그녀의 손자손녀의 손자손녀들은 성탄절 저녁 식사에 필요한 양배추를 얻으러 갔던 애니의 기적에 대한 얘기를 여전히 듣기 좋아합니다. ●

트리사 마틴은 바운티플 유타 이스트 스테이크 바운티플 제30와드 회원이다.



# 템플 스퀘어의 성탄절

활동과 지시 사항, 친8~9쪽 참조.



# 계명을 지키라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은 헤일즈 장로가  
미군 조종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헤일즈  
장로는 우리를 안내하고  
보호하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계명에 대한 그  
분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빈아다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빈아다이는 사악한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악한 노아 왕은 화가 나서 그의 제사들에게  
아빈아다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빈아다이는 곳곳하게 버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다치지 말라, 너희가 내게  
손을 댈진대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리니,  
주님께서 나를 친히 보내시어 전하게 하신  
말씀을 아직 다 전하지 아니하였음이요, ...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내가 기필코  
이루리라.”

노아 왕의 백성들은 주님의 영이  
아빈아다이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지는 것조차 두려워 했습니다. 아빈아다이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모두  
전하겠으며, 그런 후에는 노아 왕과 그의  
백성들이 자신을 죽여도 상관없다고  
외쳤습니다.(모사이야서 13:1~9 참조)

아빈아다이가 말을 마치자 노아 왕은  
아빈아다이에 그의 말을 취소하길 요구했고,  
취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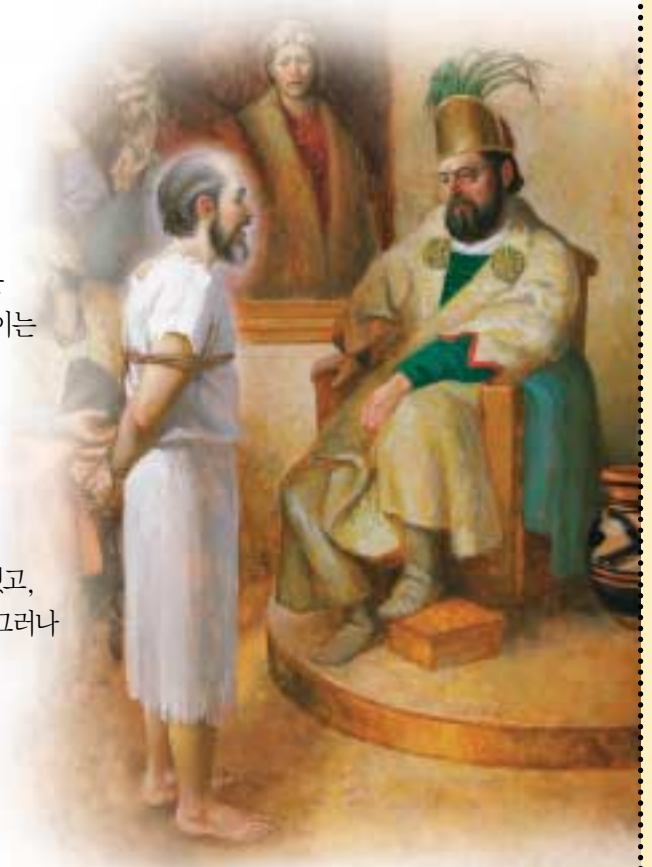
아빈아다이는 거절했습니다.

아빈아다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본보기가 됩니까!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용감하게 주님의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계명대로 생활하면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명에 순종하고 이 생과 다음 세상에서  
약속된 축복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나게 합시다. ●

1996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 친구들

